



소식·안내

- 60 창립기념사
- 62 월간브리핑
- 69 이슈 상식
달러화 강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특집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 72 수입무관세 정책 철회!
사료가격 대책 마련!
- 81 비대위 요구 및 건의자료

Special

- 90 현장스케치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기획

- 96 특별인터뷰
생우수입 반대 투쟁
23년 협회 역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아
- 김삼주 회장
- 100 한우협회 변천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들
- 102 한우공감
온라인 한우인 플랫폼
'한우공감'
- 한우공감 최준식 대표
- 106 우리한우판매점
수도권 진출 성공신화 쓴
'고산미소한우 화성점'



사양·컨설팅

- 113 컨설팅
컨설팅을 통한
미경산우 비육
지엠디컨설팅
- 116 원포인트레슨
홍성축협 등록우
경매시장을 가다
이종현 전 사무국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122 알아두기
소 럼프스킨병 이해
소 브루셀라병 방역관리
- 126 수의칼럼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소앤소 김재경 원장

연재·정보

- 129 생활 법률
상속 순위와
채무되물림 포기 방법
우양태 변호사
- 132 소가사는세상
- 134 8월 한우동향분석
한우정책연구소
- 142 8월 한우정보 주요뉴스



일품한우로 출하하시면 만족 하십니다.

1차당 “200만원 이익” 입니다.

1. 일품한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는 농가를 우선하고 한우의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 ▶ 청주(팜스토리 한냉), 영천(삼세 도축장) 2곳의 가공공장에서 한우만을 취급
- ▶ “전국한우협회와 5년간 직거래 유통망 활성화 사업” 진행 중
- ▶ 유통업체, 식육점, 식당 등 전국 4,000여개 한우전문판매장 및 1++등급 전문 판매 능력 구축
- ▶ 연간 약 1만2천두를 가공, 1,200억이상 판매하는 최우수 한우가공 기업
- ▶ 100두 이상 농가만 참여하는 “일품한우 멤버십” 운영
- ▶ 2019년 대통령 표창 수상, 전국한우협회 감사패, 표창패 수여

2. 일품으로 출하 하시면 공판장보다 1차당 200만원 이익입니다.

- ▶ 상장 수수료 없음(출하농가에 두당 약 15만원 이익)
- ▶ 높고 안정적인 가격 수취(음성공판장 결함, 도태권고우 제외가격 지급)
- 거세 음성공판장 화, 수, 목, 금 4일 평균가격 + 출하장려금 지급 (10만원)
- 암소 음성공판장 화, 수, 목 3일 평균가격 + 출하장려금 지급 (15만원)
- ▶ 등심 클수록 장려금 지급 : 등심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추가 지급
- ▶ 근출혈 보상제도 실시 : 8,500원/두 (도축시 근출혈 + 가공시 근출혈)
- ▶ 근염등 하자육 보상 : 40만원 이내 20만원
- ▶ 무항생제 인증(친환경 인증)우 장려금 15만원 추가 지급
- ▶ 출하 농가에게 일품한우 제품 구매 특권 부여 (정육점 가격의 50% ~ 70%)
※ 출하신청 : 도축예정 3달전에 출하신청하십시오.

근출혈 보상·근염등 하자육 보상

자체근출혈보상 : 가공근출혈까지
하자육 보상 : 20만원

빠른 출하대금 지급

출하 · 도축 · 가공 후
출하대금 즉시 지급

출하선도금 60% 지원

담보없이 출하대금의
60% 지원

축산농가 성적향상 컨설팅

한우연구소 전문 교수진 및 40년 경력의
한우사양지도 자체 전문가 현장방문 지도

원하는 시기에 출하가능

축산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출하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가능

도축과정 투명화

CCTV를 통해 현장 확인가능



www.poom1800.com

출하
문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일품한우 출하담당자
070-4204-4879, 010-3540-0147, 010-4020-1764

| 창 립 기 념 사 |

도전의 23년,
희망의 100년

위기를
기회로!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동생으로!

1999년창립 당시 2,500여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던 한우 협회는 이제 2만 8,000여명의 농가가 함께하며 한우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농민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한우인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두터운 신뢰, 그리고 끊임 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맞이한 창립 23주년을 자축하며, 한우산업과 협회의 높아진 위상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안정된 한우산업을 위해 함께 묵묵히 노력해주신 모든 한우농가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위기가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시련의 연속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상회복과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 일상으로의 돌이킴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구호는 한우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최근 전세계는 지구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가치를 훼손당하고 소비시장에서까지 외면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한우는 시대변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천하며 국민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한우인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립하여 한우산업을 국민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된 한우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

후손 대대로 길이 번영하는 한우산업은 우리의 간절한 여망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지속가능한 100년 한우산업을 향한 길 위에 놓여진 생존 키워드입니다.

청정 한우산업의 구현 그리고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이 함께 한우산업을 지켜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상향, 한우산업전환법 및 기본법의 발의 등 위기 속에서도 협회의 힘으로 안정적이고 창대한 한우산업의 제 2의 도약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우인 여러분들께서도 한우산업에 드리워진 불안한 전망을 견어낼 수 있도록 선제적수급조절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항상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동생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월간브리핑

2022년 8월 협회 주요활동



8.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TF 회의

8.4

축산환경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8.8

럼피스킨병 전문가 협의회

8.9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회의

8.11

축산 생존권 사수 총결기 대회

- 일시: 8월 11일 오후 1시
- 장소: 서울역 12번 출구 집회장소



8.12

농림축산검역본부 R&D 기획전문위원회

8.12

한국농어민신문 인터뷰

- “정부 실효없는 무관세 정책 고집,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만 부추겨”(2022.8.19.일자)

8.16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실무회의

- 집회 이후 후속조치 논의 및 정산 관련 협의

8.17

축산물 PLS 교육홍보물 제작배포
사업 자문회의

- '24년축산물 PLS 제도시행에따른 축산계 제도시행을 알리는 교육홍보물 제작방향공유 및 자문 등 진행

8.18

월간한우 인터뷰

- “한우농가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 다할 것”(월간한우 9월호)

8.22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회의

- 집회 평가 및 추후 활동 계획 논의

8.22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개막식(제19차)

- AAAP조직위원회 및 한국축산학회 공동주관·주최 국제학술대회
- 일시: 8월23일~26일 (3박 4일)
- 장소: 제주도 서귀포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8.25

MBN 토요포커스 촬영

- “한우 산업의 위기 관리 방안과 전망은?”(2022.8.27.방송)



8.25

제1차 한우자조금 사업 및 예산심의 소위원회

8.25

추석맞이 대규모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판매 포토행사

-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홈페이지에서 한우 최대 50% 할인 <8.25~9.1>
- (오프라인) 9월 7일까지 전국 582개 대형마트 매장에서 최대 30% 할인 <8.24~9.7>

8.25

한국축산경영학회 2022 하계학술대회

- 1주제 <신정부의 축산정책과 과제>
 - 신정부의 축산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 차관보)
 - 탄소중립시대 축산부문 대응방안 (김창길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 종합토론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정책지도국장/ 농협중앙회 윤용섭 한우국장, 농민신문 임현우 부국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 2주제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축산업의 변화와 역할>
 -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건 박사)
 - 메가 FTA 체결과 국내 축산업의 대응과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

8.26

본화-서울시, 한우이유식지원사업 MOU 협약식

- 저출산 인구감소 사회현상 개선을 위한 한우산업의 기여 신규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내 중위소득 80%이하 6~12개월 영유아
 - (향후계획)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작 후 사업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전국으로 사업 확대



8.29

가축방역심의회 구제역분과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회

- (목적)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문 추진
- 협의의견
 - 종모우 및 암소 등 개량이 선행 우선
 - 탄소저감은 부수적 효과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사양과 육종연구가 우선
 - 농가소득 및 한우의 맛, 특성 변화 등 우려가 높은 현장의견 전달
- 정부의견
 - 환경 및 탄소저감 보다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겠음
 - 주기적으로 상황점검 및 의견청취하여 반영하겠음

8.30

한우 인공수정교육 (~8.31)

- 장소: 국립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 강의 및 실습
 - 번식우 사양 및 암소비육기술
 - 소의 인공수정

8.31

축산경제신문 인터뷰

산림청 산림부산물 조사료화 업무협약

- 실제 수거량 및 조사료 대체효과 분석



한우수급조절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한우수급조절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국한우협회 각 시군지부로 신청하세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지원금액 | 마리당 20만원
지원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출생개체
지원조건 | 36개월령 이하
미경산우로 도축

자율감축 사업

지원내역 | 3마리 이상부터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지원대상 |
미경산우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출생개체
경산우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출생개체
지원조건 |
미경산우 36개월령 이하 도축
경산우 6~11개월 이내 비육 도축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지원내역 | 마리당 10만원
지원대상 |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된 한우암소

※ 축산물이력제 상 도축출하 신고 시 소유주에게 지급

우리! 함께! 다시!

2022한우인전국대회

한우수급조절·방역결의대회

2022. 10. 7(금) 13:00~17:00

괴산종합운동장 (충북 괴산군·읍 동진천길 197)

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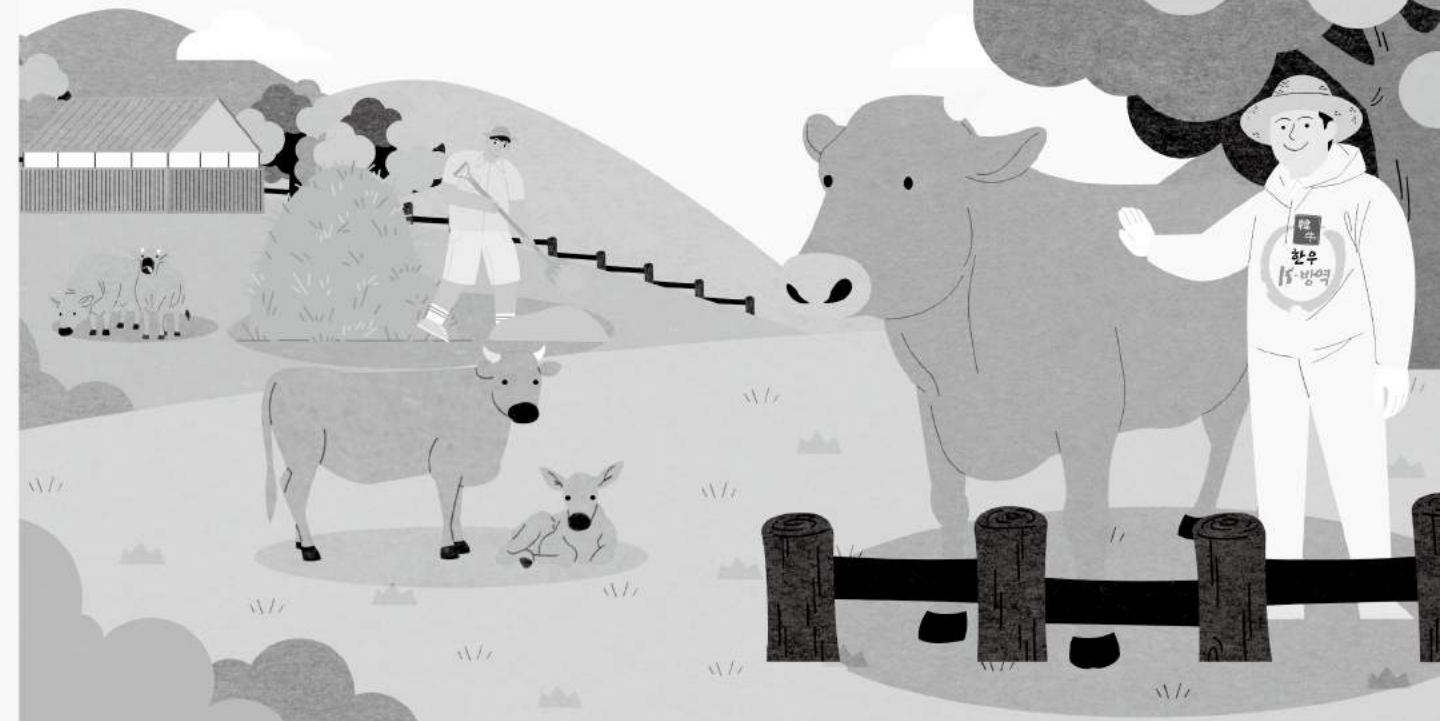
한우 수급조절 및 방역 결의대회(13:00)

부대행사

- 기자재 전시회
- 캠페인 전시관
- 한우사진전
- 한우시식
- 경품이벤트
- 한우농가 교류한마당
- 축하공연

축하공연 출연진

- 이찬원
- 은가은
- 임수정
- 비스타
- 천무응원단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채(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360kg이상 540kg이하	30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300kg이상 440kg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화, 수, 목, 금 평균가		
부산물	두 · 내장 · 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출하대금의 0.1%를 적립하여 하자육 발생시 사용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기타	초과우 및 미만우 지급비율 ⇒ 중앙회 문의		



달러화 강세



달러화 강세로 수입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업계도 사료의 원료인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며 생산비가 급등하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다.
달러화 강세란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때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달러를 얻기 위해 1200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1300원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같은 단위에 같은 금액의 곡물이라도 과거보다 10% 정도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반대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화황을 누리게 되는데, 미국에서 1달러를 팔면 환전할 경우 과거 1200원을 매출을 올렸지만, 달러화 강세로 지금은 1300원을 받게 되었으니 같은 금액으로 같은 양의 물건을 팔았더라도 매출이 10%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2022년 대한민국은 1년 전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2%대의 초저금리가 일반적이었던 2020~2022년과 달리 지금은 3~4%대의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가 인상된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대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동성 즉 현금이 시장에 많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물가 인상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소득이 5% 증가했다 할지라도 물가가 5% 증가했다면 소득은 그대로인 것이 되는 것이고 소득 증가율이 물가 인상을 보다 낮으면 명목적으로 소득이 늘었더라도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조정한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중채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건초	2.0	자 유 채 식									2.0	2.0	1.0												
조사료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 육 구 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 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체 중 (kg)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10	330	350	370	390	410	430	450	470	490	510	520	포유중		
		150	170	190	210	230	250	265	285	305	325	345	365	385	405	425	445	465	485	505	515	535			
일당중채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 분		번식용 증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 량	배합 조사료	2 ~ 3 kg							3 ~ 4 kg													4 kg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5kg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불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성유
에너지	20.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성유
번식우	14.0	2.0	15.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8	1.2	68.0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성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성유
육성기	15.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0.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성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3.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으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성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5.0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아자박, 팥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22년 9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5kg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

전국한우협회

어린송아지

15,925

번식우

12,350

육성

1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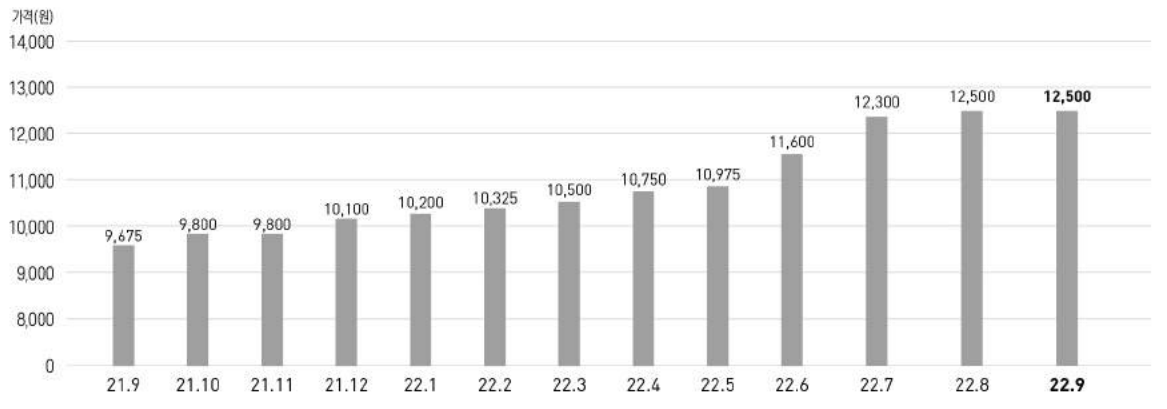
비육전기

12,700

비육후기

12,9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11일(목)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수입무관세 정책 철회! 사료가격 대책 마련!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7월 20일부터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무관세로 포기한 세수입은 최소 2,000억 원에 달한다.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가안정 명목으로 수입판매에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면 수입축산물 지원보다 최소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지원대

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추석에 300억 원 수준의 소·돼지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추석 기간 도축수수료지원이 정부의 대책안이다. 이에, 축산농가가 분노하고 정부 정책이 결국 수입장려책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생필품과 전력·유류·서비스 등안 오른 것이 없다. 하지만, 단 하나 수입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국내축산물가격만 하락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는 치솟는 사료값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축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역으로 집결했다. - 이어서 106p 화보

총 쫓기대회 식순

본 대회

- 13:00 | 집결 및 대오정비
- 13:30 | 농민 의례, 농민가 제창
- 13:35 | 참석 대표자 소개, 국회의원 소개
- 13:40 | 대회사
- 13:50 | 격려사(참석 국회의원)
* 참석 국회의원 대부분 발언 요청
- 14:10 | 문화공연 1(잇다)
- 14:25 | 영상 1
- 14:30 | 투쟁사 (1, 2, 3, 4)
- 14:50 | 문화공연 2(잇다)
- 15:00 | 결의문 낭독 (2인~3인)
- 15:10 | 퍼포먼스
- 15:20 | 대오정렬

행진

- 15:20 | 행진시작
(40분 이내 소요 / 약 1.6km)
- 16:00 | 삼각지 앞 집결

정리집회 / 발언

- 16:20 | 종료



축산 생존권 사수 총 쫓기대회

1. 개요

- 대회명 |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대책촉구! 축산 생존권 사수 총 쫓기대회'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13:30분 (사전집회 13시)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 앞(본대회) → (행진) → 삼각지역 파출소 앞(정리발언)
- 주최·주관 |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
※ 비대위 :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

2. 기조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 정부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써,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대한민국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 건의사항
 -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2)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 촉구
 - 3) 소비자가 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4)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수입 축산물 철회

결의문 | 축산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이다. 2021년 기준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 유제품 소비량은 86.1kg으로 쌀 소비량 56.9kg에 버금가거나 능가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수입망령 반(反)축산 정책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오늘 국내 축산업의 존립과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FTA발효에 따라 수입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이미 무관세로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닭고기와 소고기, 유제품은 2023년과 2026년에 관세가 전면철폐된다. 국가가 방치한 식량자급기반은 붕괴 직전으로, 2021년 기준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인 자급률 수치에서도 여실히 보여진다. 지난 2년간 30% 이상 폭등한 사료가격도 농가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아무리 오른다 한들 소, 돼지, 닭을 굶길 수가 있는가! 고기, 우유, 계란은 국민들이 즐겨먹지만, 축

산농민들은 철저히 무시당하며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수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뿐이다. 최근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축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는 물론, 작년 무차별 가금육 살처분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계란수입으로 댔었다. 군장병의 건강과 체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급식마저 수입산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 정신 나간 축산말살정책에 전국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 무역을 위시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현재 식량전쟁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사람은 반도체나 기름이 없어도 살지만, 식량이 없으면 죽는다. 똑똑한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FTA 등 대외무역에서 늘 피해를 입었다.

축산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결의!

이뿐 아니라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무관세 TRQ 확대, 군납 수입산 장려 등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 약속은 저버리기 일쑤다. 기업의 손실보전과 수입유제품 장려를 위한 낙농말살책 추진으로 이미 전국 낙농가들은 177일째 길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식량전쟁 시대, 이미 축산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농식품 국내생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8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도 아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정부 당국자만 모르고 있는 현실에 축산농가들은 분개하고 있다. 농정이 표류하고 농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정책이 절대 선(善)인양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농정독재다. 반복되는 축산몰살은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 국정지도자들의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철학부재와,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그랬듯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축산 생산기반 사수는 필수적이다. 오늘 궤기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11만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 건강주권과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뚝뚝 뭉쳐 우리 축산업을 지킬 것이다. 투쟁!

2022년 8월 11일
전국 축산농가 일동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하라!

- 우리의 요구 -

- 하나,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 하나, 수입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하나,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즉각 철회하라!



수입소고기 무관세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고기 할당관세 제로 물가대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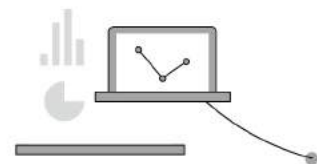
- ☑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
 - 물량 : 10만 톤 / 적용기간 : 7.20~연말
 - 관세 인하 : 미국(10.6%→0%), 호주(16.0%→0%), 캐·뉴(18.6%→0%)
- ☑ 물가인하 기대효과(정부 측)
 - 소비자가격 5~8% 하락/ 관세지원효과 : 2,242.6억 원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 ☑ 기존 한우고기 수요가 수입육으로 대체 우려
 - 한우 지육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 수입 감소
 - 자급률 하락으로 소고기 해외의존도 심화(21년 자급률 36.8%)
- ☑ 특히, 한우 도축두수 증가 및 가격약세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입육 관세 0%는 한우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음
- ☑ 또한 할당관세 물량 10만 톤은, 연간 한우 공급량 23만 톤(21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큰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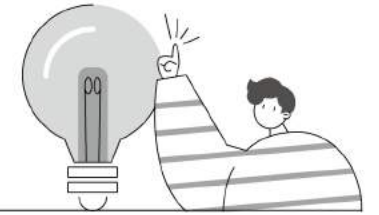
관세지원 2,242.6억 원 수혜자 및 소비자물가 하락효과에 대해

- ☑ 1차적으로는 해외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 및 수입업자는, 사업이익 최대화 차원에서, 관세 인하 분만큼, 관세절감 효과가 높은, 단가가 높은 고급육(냉장 및 등·안심 등)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음
- ☑ 아울러 수입육 도·소매 유통업자의 이익제고에 흡수될 가능성 높음
 - 21년 수입육 유통마진 53.4%
- ☑ 결과적으로, 관세인하가 소비자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 수혜 이익은 상당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대안으로 관세를 재정정책으로 한우고기 소비자 할인에 활용한다면,
20% 할인 시, 1조 1,213억 원,
30% 할인 시, 7,475억 원 상당 가능

교차가격 탄력성에 의한 한우 피해액 추정



한우가격 하락 추정

4.16%

$$\frac{\text{전체 수입쇠고기 평균 할당관세 인하율}}{13\%} \times \frac{\text{한우와 수입쇠고기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0.32}$$

피해액 추정

1,652억 원

$$\frac{\text{21년 한우생산액}}{5\text{조}7\text{천}246\text{억 원}} \times \frac{\text{한우가격 하락률}}{4.16\%} \times \frac{\text{연중 영향계수}}{69.4\%}$$

※ 연중 영향계수(69.4%)는, 8월 이후 할당관세 수입량이 다음해 설 명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연간 도축두수 비중으로 추정

- 20.8.~21.7. 도축두수 중, 20.8.~21.3.의 비중(21년 설날, 2월12일)
- (531,272두) ÷ (765,236두) = 69.4%

- ☑ 수입산 쇠고기 평균 할당관세 인하율 : 13.0%
 - 국가별 수입금액 비중(21년도)과 현행 관세율(2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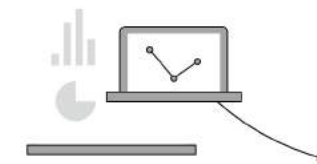
구분	미국	호주	기타	계
21년 수입금액(백만\$)	2,093	1,258	209	3,560
비중	58.8%	35.3%	5.9%	100.0%
22년도 관세율	10.6%	16.0%	18.6%	
평균 관세율 추정	(10.6%×0.588) + (16.0%×0.353) + (18.6%×0.059)			1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관기준

주 : 1) 기타국가 관세율은, 수입비중이 큰 뉴질랜드 및 캐나다의 적용 관세율

2) 수입쇠고기 평균관세율은 미국, 호주, 기타국의 현행 관세율에, 각각의 수입금액 비중을 곱하여 산출

- ☑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 0.32
 - 구이용 부위(등심, 특수부위 등)별 교차가격 탄력성 : 0.27~0.37
 -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가격탄력성 0.27~0.37의 중간 수치를 대표치로 가정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1% 변할 때 한우 가격은 0.32% 변동

※ 참고자료 : 남국현·최영찬,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농촌지도와 개발 vol.23, No.4), 2016.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제도로 인한 관세금액 추정

소고기 할당관세 제로 물가대책 개요

- ☑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
 - 물량 : 10만 톤/ 적용기간 : 7.20~연말
 - 관세 인하 : 미국(10.6%→0%), 호주(16.0%→0%),
캐·뉴(18.6%→0%)
- ☑ 물가인하 기대효과(정부 측)
 - 소비자가격 5~8% 하락/ 관세지원효과 : 2,242.6억 원

수입쇠고기 1kg당 평균 수입단가 산정

- ☑ 22년 1~5월까지의 누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관기준)
 - 수입 금액 : 1,856,526천 달러
 - 수입량 : 201,721톤
- ☑ 수입단가 = (수입 금액 ÷ 수입량)
 - = (1,856,526천 달러 ÷ 201,721톤)
 - = 9.2달러/kg

2022년도 수입쇠고기 평균관세율 산정

- ☑ 평균 관세율 : 12.9% - (미국의 관세율 × 미국산 수입금액 비중) +
(호주의 관세율 × 호주산 수입금액 비중) +
(기타 국의 관세율 × 기타 국 수입금액 비중)
 - ※ 기타 국 수입비중 7.8% 중, 뉴질랜드(3.3%), 캐나다(3.1%) 2개국 비중이 6.4% 차지
 - 기타 국 중, 나머지 국가는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덴마크, 네덜란드 등
- ☑ 22년도(1~5월 누계) 수입금액 비중과 관세율

구 분	미국	호주	기타	계
21년 수입금액(백만\$)	1,138	573	146	1,857
비 중	61.3%	30.9%	7.8%	100.0%
22년도 관세율	10.6%	16.0%	18.6%	
평균 관세율 추정	(10.6%×0.613) + (16.0%×0.309) + (18.6%×0.078)			1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관기준

주 : 1) 기타국가 관세율은, 수입비중이 큰 뉴질랜드 및 캐나다의 적용 관세율
2) 수입쇠고기 평균관세율은 미국, 호주, 기타국의 현행 관세율에 각각의 수입금액 비중을 곱하여 산출

수입육 1kg당 관세 산정

- ☑ 수입쇠고기 1kg당 관세 = 평균 수입단가 × 평균 관세율
 - = 9.2달러 × 12.9%
 - = (9.2달러 × 1,308원) × 12.9%
 - = 1,2034원 × 12.9%
 - = 1,552원

※ 환율적용 : 1달러 = 1,308.00 (22년 8월 3일자 기준환율)

수입물량 10만 톤 상당 관세금액 추정

- ☑ 10만 톤 상당 관세 = 1kg당 관세 × 10만 톤
 - = 1,552원/kg × 10만 톤
 - = 1,552억 원

수입쇠고기 관세율 제로 할당관세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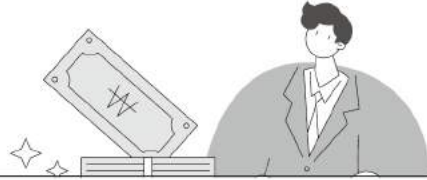
10만 톤에 상당하는 관세는 **1,552억 원**으로 추정됨

■ 가정

- ☑ 할당 관세 수입육 평균단가는 기존과 변함없음
- ☑ 국가별 수입금액 비중은 일정
 - 향후 수입육 단가 상승, 관세율 높은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비중이 높아지면, 추정관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수입소고기 관세 제로 발표직후 한우가격 동향



쇠고기 할당관세 제로

발표일 전후로

주간 한우 평균

도매가격 하락세

☑ 쇠고기 할당관세 제로

을 보면, 이전에는 완만한 상승세였으나, 이후에는 하락세로 반전

☑ 주간 평균 가격은 할당관세 발표 이전에는 1만 8천 원대에서 유지되

었으나, 이후에는 1만 7천 원대로 하락

☑ 관세 발표이후, 주간 한우 평균 지육가격은 D+1주, 4.5%(▲850원),
D+2주, 7.4%(▲1,387원)로 2주 연속 하락

- (D-1주; 7/4(월)~7/8(금)) 18,739원/kg → (D+1주; 7/11(월)~7/15(금)) 17,889원/kg → (D+2주; 7/18(월)~7/22(금)) 17,352원/kg

☑ 한편, 한우의 공급 지표인 1일 평균 판정두수가 감소했음에도
가격 하락

- 1일 평균 판정두수 : (D+1주) 3,121.4 → (D+2주) 2,940두, 181.4두 감소

육질 등급별 가격

(주간평균) 하락률

(관세 제로 할당관세 발표 D+2주)

☑ 관세제로 발표 이후(D+2주),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3등급 가격은,
한우전체 평균(7.4%하락)보다 더 큰 10.4%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

- (D+1주)에는, 3등급 가격하락률은 5.8%를 기록(한우전체 평균하락
률 4.5%)

☑ 이는 3등급 한우고기가 수입육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대체관계가 크
기 때문

- 7월 20일, 관세 제로 수입쇠고기가 통관되면서, 그 충격이 크게 작
용한 것으로 보임

☑ 관세 제로 할당관세 발표 전후, 한우 등급별 주간 평균 가격(전국)

구분	발표이전 주간 (원/kg) (7/4(월)~7/8(금))	발표이후 주간(원/kg)		발표전 후(D+2주) 변동 (원/kg)
		D+1주 (7/11(월)~7/15(금))	D+2주 (7/18(월)~7/22(금))	
1++ 등급	25,633	24,707	24,615	▲4.0%(1,018)
1+	21,809	21,039	20,847	▲4.4%(962)
1	18,624	17,891	17,745	▲4.7%(879)
2	14,007	13,458	13,126	▲6.3%(881)
3	10,311	9,718	9,236	▲10.4%(1,07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비대위 요구 및 건의자료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축산인 요구 및 건의사항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2.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 촉구

- 사료값 폭등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화 지원대책 마련
- 면세유 등 생산비 부담 물가안정 지원책 마련

3. 소비자가 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4.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1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 0% 철회 건의

개요

- ☑ 7월 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

※ 돼지고기 할당관세(0%, 5만톤, 6.22~) 적용

-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주요 내용

-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
-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구분			지원내용		세율(%)			지원효과 (억원)
				수량(톤)	현행	FTA 등	변경	
할당관세 확대	소고기	냉장	할당관세 신규적용	100,000	40	미 10.6 호 16	0	2,242.6
		냉동						
	닭고기			82,500	20~30	브·태20~30		329.8
	분유 (전자·탈지)			1,607→ 10,000	20,40/176	EU·미·뉴 0		438.5
	돼지고기 (삼겹살)		물량증량	1만→3만	22.5/25	캐 9.6 브·맥 22.5/25		111.8

자료 : NEWSIS 보도자료, 수입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2022.07.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93423?sid=101>)

문제점

- ☑ 실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 유발

- 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10~16% 수준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되는 관계로 유통비용을 약 50%라고 감안할 때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수입축산물은 정부가 예상했던 관세인하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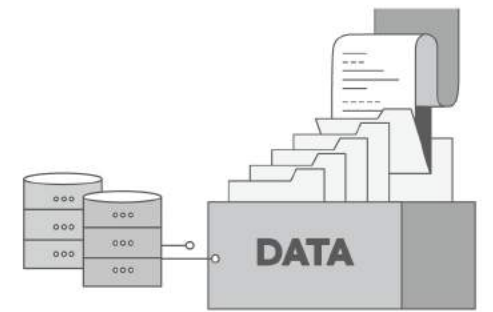
7.20일 기준(할당관세 0% 적용)과
관세이후 축산물 가격 비교

구분	7.26일 기준	7.27일 기준
소고기(미국산 갈비)	2.58%↑	2.58%↑
소고기(호주산 갈비)	4.45%↑	4.37%↑
돼지고기(삼겹)	0.41%↑	0.34%↑

- ☑ 국내 축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한 정책

역효과 발생

- 수입소고기(2.58~4.45% 상승) 및 수입돼지
고기(0.41% 상승)할 때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수입무관세로 인해 하락함
-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
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 불과



7.20일 기준(할당관세 0% 적용)과
관세이후 국내산 축산물 가격 비교

구분	7.26일 기준	7.27일 기준
소고기(한우 1등급)	1.37%↓	0.98%↓
돼지고기(삼겹)	1.1%↓	1.54%↓

- ☑ 정부는 할당관세 0%가 적용 시 소비자가격 5~8% 하락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입증한 결과임
- ☑ 축산물 할당관세 제로 발표일 전후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세 가속
 - 한우의 경우, 할당관세 발표이전에 1만 8천원대를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1만 7천원대로 하락

관세 발표이후,
주간 한우 평균지육가격은 2주 연속 하락

구분	D+1주	D+2주
한우 평균 지육 가격	850원↓	1,387원↓
한우 평균 지육 가격율	4.5%↓	7.4%↓

- ☑ 주요 국내산 축종의 피해액 추정

- 한우 : 1,652억 원 피해액 추정(4.16% 하락 시)

$$5조7천246억원(21년 한우생산액) \times 4.16\%(한우가격 하락률) \times 69.4\%(연중 영향계수) = 1,652억 원$$
- 닭고기 : 695억 원 피해액 추정 (6.4% 하락 시)

$$\times 2조270억원(21년 닭고기생산액) \times 6.4\%(닭고기가격 하락률) \times 53.6\%(연중 영향계수) = 695억 원$$

건의사항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소비자가 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2 사료값 대책 촉구 건의

현황

☑ 해외곡물 가격 동향

- 남미 수급 악화 및 미산 곡물작황 부진, 달러 환율증가 등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

(도착도, 단위 : \$/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1분기	2분기	평균 (‘19대비)	3분기 (‘19대비)
옥수수	200	200	248	310	281	321	381	351 (76%↑)	400 (100%↑)
소맥	238	231	266	298	289	344	332	337 (42%↑)	380 (60%↑)
대두박	378	358	458	484	471	474	539	522 (38%↑)	620 (64%↑)

- 러시아 수출제한 정책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곡물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망 차질로 이어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국제 유가 폭등(달러/배럴)

※ (‘20) 39.4 → (‘21/1분기) 57.8 → (‘21/2분기) 66.1 → (‘21/3분기) 71.0 → (‘21/4분기) 77.2 → (‘22/1분기(e)) 85.0 *(20년 대비 115%상승)

☑ 최근 사료가격 인상(조정) 현황

-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 조정

(단위:원/kg)

구분	21.12~22.01	3월	5월	6월	7월	누계
비육	42.3	25.3	24.5	33.0	15.4	130.0
낙농	43.9	25.3	27.0	35.7	16.4	136.8
양계	49.9	22.9	28.5	45.2	35.0	157.7
양돈	51.1	31.1	36.1	45.3	35.4	183.6
평균	47.5	26.1	29.0	39.8	25.6	152.0

- 국제곡물가격 인상, 해상운임 증가, 환율 강세, 달러화 가치 강세,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2.9%,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 등

문제점 및 필요성

☑ 해외곡물 가격은 세계곡물 수급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22년 한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하반기 수입원료가격 반영분으로 인해 사료값 추가 상승요인이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 과중 예상

- ☑ 현재 한우를 한우를 출하해도 1+이상 등급 아래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출하 두수가 증가되는 시점인 22년~24년에는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소지가 있음
- ☑ 이에, 사료값 생산비 안정 및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 인상분의 일부차액을 보조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건의사항

해외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 지원 촉구

-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방안 마련 (22년 비료차액 보조지원)
 - *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지원 사례
 - * 비료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
 - * 농업인의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처럼 축산농가도 해외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액 일부 지원을 건의함

농가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기존대출 연장, 여신한도(동산/가축담보) 확대

- 95% 이상 계열화된 육계, 오리 등의 경우 계열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마련
 - * 생산비 폭등에 따른 계열업체 무이자 운영자금 등 지원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구(2/102~4/104→4/104~6/106)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 마련
 - * 사료안정기금 도입 : 사료가격 상승 시 보전금 지원
 - * 사료곡물 비축물량 확대 : 사료곡물 재고확보로 수급 안정화
 - * 사료곡물 안전재고 일수 확대 : 기존 30일→변경 60일
 - * SOC(항구 저장시설 등) 추가 확보 및 운영자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필요
 - * 대체원료(겉보리, 소맥피 등) 할당관세 추천물량 증량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사일리지 제조비용(생산+유통비) 지원확대(작업비 톤당 6만원 → 9만원)
- 종자비 지원 확대(37억원→100억원 이상)
- 논타작물(논→조사료(사료용 벼 등))재배 지원
- 유흥지 및 하천부지 농축협·영농조합법인 조사료 부지 활용 건의

3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건의

개요

☑ '20년도 기준 전체 군 급식 조달규모는 1조 6천억원 수준

- 이 중 농·축산물 조달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전체의 36.7% 점유

-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평시 안정적 조달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50년간「국방부-농·축·수협·수의계약」을 통해 운영

* (참고) 근거 : 국가계약법, 점경지역지원특별법, 국방부-농협중앙회 간 협정서 등

☑ 주요 품목별 사업규모('21년도 기준)

구분	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계
공급액(억원) <비중>	1,150 <7.1%>	1,910 <11.8%>	4,035 <24.9%>	1,830 <11.3%>	7,289 <44.9%>	16,214 <100.0%>
공급자	농식품부	농협	축협	수협	민간	-
비고	정부 비축미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경쟁입찰	-

국방부 군 급식 개선대책('21.10.14)

☑ (배경) '21년 4월 코로나19 예방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

- 한 장병이 개인 SNS를 통해 격리 중 지급 받은 도시락 사진 업로드로 문제제기

- 각종 언론보도로 군 급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경과) BH發 민관군합동위원회 설치 지시를 통해 논의 본격화

- (BH)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 설치 지시('21.6.7)

- (국방부) 합동위원회 출범(6.28) 및 2·3차 회의(7.21/8.9)를 거쳐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10.14)

☑ (주요내용)

1)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21년) 8,790원 → '22년) 11,000(25.1%↑)

2)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개편

-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 경쟁조달로 전환

* '21년 대비 : ('22) 70% → ('23) 50 → ('24) 30 → '25년 완전경쟁 조달

- 기본품목 이었던 갈비, 삼계탕 등 4품목의 선택품목 전환(고단가품목)

- 흰 우유 급식의무 폐지 : '21년) 393회 → '22년) 313 → '24년 자율

3)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민간조리원 확대 등 운영시스템 개선

문제점

☑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1) (프레임) 정부는 애초부터 부실급식 원인을「식재료 조달」문제로 단정

- 전임 정부에서는 부실한 부대의 식단관리에서 비롯된 급식사태를 농·축협 수의계약에 따른 원재료 조달 문제라는 프레임 속에서 출발

2) (감사 결과) '21년 4월 부실 군 급식 사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21.12.14 발표> 이는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

- 급식운영 지침에 따른 부대별 급식예산 운영의 집행 부적절 및 육군본부(급양대)의 지도·감독 부실

* 운영지침(예산 ±10%)에 맞춘 부대는 '19년 2.8%, '20년 0.6%에 불과하며, 일부 부대는 약 ±40%에 가까운 식재료비를 불균형 배분 → 군 급식비 운영 부실

- 영외 거주 간부 등의 사전신청 없는 영내급식 이용으로 급식운영에 지장 초래

* 육군 11개 사단에서 '19.1월~20.5월까지 하루 평균 475명 이용(총 73만 3,835명)

☑ 경쟁입찰 조달의 문제점

1) 전·평시 안정적 물량 조달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 위배

- 군 급식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품질 비균일, 수급 불안 등 경쟁입찰 부적합

* 경쟁입찰은 수요가 보편적이고, 공급조절이 가능하며, 품질이 표준화된 공산품에 적합

- 학교급식도 농·축산물은 대부분 수의계약 조달로 안정적 공급 추구

2) 가격중심 저가 경쟁입찰 → 유통업체 위주 공급 → 식재료 부실화의 악순환 구조 고착 우려

- 이윤이 최우선인 일반기업의 경우 저품질 농·축산물 공급으로 급식 질 저하 우려

- 축산물 가격상승 시「나몰라라」식의 무책임 예상 (실질적 제재×)

3) 경쟁 입찰시행 1년차('22년 30%물량 조달

중) 많은 문제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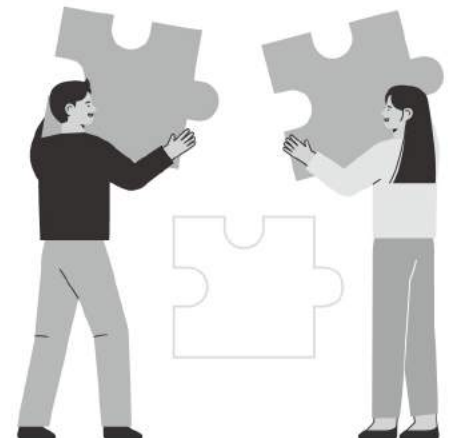
-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로 수입산 비중↑ 등 식재료 부실화

- 가공식품 비율 급증에 따른 식재료 예산 증가, 군 장병의 영양 불균형* 초래

* 가공식품 비율 : (기준) 30% 수준 → (현행) 70% 이상

* 대표적 장수마음인 오키나와 몰락 사례(건강식→가공품·패스트푸드 식생활 변동)

- 식자재 검증이 제한되는 가공식품 중심의 공급으로 식품안전 상시 위협



-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축산물 가격이 높은 최근에 여러 곳에서 납품차질 발생

- * 일부 업체 축산물 미 공급으로 인근 축협을 통해 납품 요청사례 빈번
- * 군납 축협의 경우 과거 50년간 군과의 동반자적 관계유지로 손해감수 납품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 공공성 및 당위성

- ☑ (공급 안정성) 안전한 국내산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

- 1) 농협은 평소 총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시 축산물 공급체계 유지
- 2) 그간 숯한 재해, 질병, 가격폭등 등 비상시에도 군납은 최우선 정상 납품
 - 비영리 법인인 군납 축협의 경우 가격 폭등 시에도 안정적 공급을 우선
 - 전국 139개 축협 연계로 물량확보가 가능한 전국적인 단일 생산조직

- ☑ (품질·가격) 식품안전*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안정성 확보

- 1) 생산단계부터 품질 관리 가능한 공급주체는 농·축협이 유일무이
 - (생산) 군납축협 조합원 농가가 직접 생산한 제품(축협이 생산·출하지도)
 - (가공) 축협 직원이 가공장에서 책임생산 감독 직접 수행(가공장 품질관리)
 - (점검) 중앙회 품질보증단의 군납가공장 승인 및 현장 항시점검(중앙회 품질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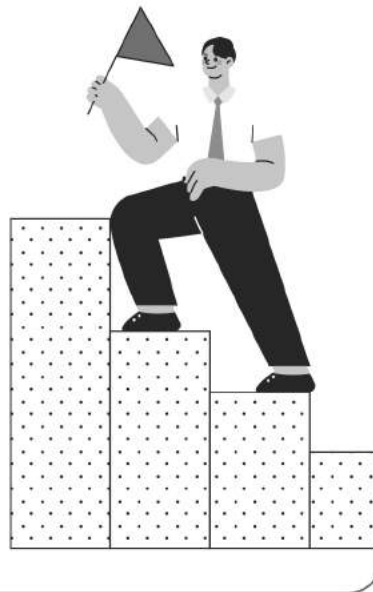
- * '21년 납품물량(30,450톤) 대비 불합격(반품) 비율은 0.0036%(1.1톤) 수준에 불과

- 2)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군납 공급
 - 군납 단가 = 재료비(통계청 생산비, 공인기관 평균 가격) + 납품 제비(운송비, 보관료 등)
 - 군납은 부대 인근 농가 판로 확대 및 지속적인 안정 공급이 주된 목적

건의사항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급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 군납은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시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저가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 필요
- 국내산 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전시체제를 대비하는 기본방향 설정
-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지역농촌과 공공조달 체계 구축 필요
- 국내 농축산물 판매 급감으로 인한 자급율 하락 및 식량안보 역행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납품까지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급주체 필요



개량의 힘, 새로운 역사!

www.aiak.or.kr/hanwoo

제 25 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하·도축·경매

출하일 2022. 10. 10(월)
도축일 2022. 10. 11(화)
경매일 2022. 10. 12(수)
장 소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출품축 이외의 개체는 출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 식

일 시 2022. 11. 3(목) 오전 11시
장 소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세종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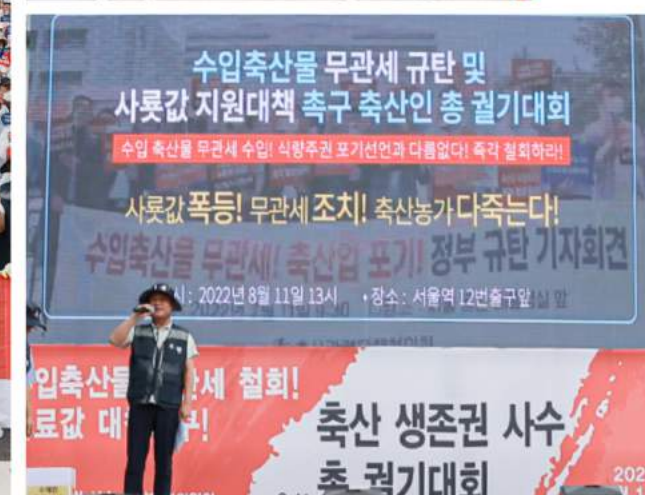
-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주 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후 원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음성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조합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축산물 무관세 수입 반대... 정부 규탄 한 목소리
정부 정책 실패! 할당관세 이후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
수입 축산물 소비자 가격 오히려 4% 이상 가격 상승
축산농가 사료값 등 생산비 폭등 국내산 축산물 가격 하락 이중고
비대위, 811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개최





1



2



6



7



3



4



8

우리 협회는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을 맡아 지난 8월 11일 서울역에서 대대적인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가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로 몸살 일 앓고 있던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1만여명의 참여해 축산 농가의 절박함과 정부에 대한 상실감이 극에 달했음을 한눈에 보여줬다.



5



9



10

- 1 금산군지부
- 2 여주시지부
- 3 당진시지부
- 4 경기광주시지부
- 5 이천시지부
- 6 생산자 단체장
- 7 경주시지부
- 8 합천군지부
- 9 군산시지부
- 10 서천군지부

김삼주 회장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입축산물 가격은 오르고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농가들의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가속화하는 비수가 됐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룻값 안정대책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1 방송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삼주 회장
- 2 결의문 낭독하는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 3 구호외치는 단체장들
- 4 투쟁하는 황재택 전무, 김문흠 부회장
- 5 구호 외치는 이연목 인천경기도지회장과 정인철 울산시지회장, 정운섭 전북도지회장
- 6 8~9대 김홍길 전회장
- 7 대통령실 요구사항 전달

생우수입 반대 투쟁

23년 협회 역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아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8.11 축산인총궐기대회... 실망이 희망으로
한우농가 위한 농정활동에 더욱 최선 다할 터

전국한우협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 협회설립 초창기 회원으로 가입했고, 당시에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봉사할 때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지역에서부터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지금 협회장으로 봉사하는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한우와 한우협회와 함께한 것 같습니다.

협회창립 23주년 처음에는 담담하게 다가왔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느끼고, 앞선 선배님들이 한우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협회장으로서 책임감도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선배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해야 할 일하기에 최대한 중심을 잡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협회 창립 때부터 회원으로 참여하셨으니 기억에 남는 장면도 많을 것 같습니다.

▶ 생우 수입 당시 협회가 대응하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집회 당시엔 나이도 어렸었고,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를 걱정하며 모였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또 한 가지 뽑으라 한다면, 지난해 이뤄낸 청탁금지법 개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완전히 제외하지는 못하였지만, 성수기인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족쇄를 어느 정도 해소해 내면서 청탁금지법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때의 농정활동 경험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8.11 서울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고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8.11 집회에 일부 도지회가 불참한다고 통보해 오면서 집회 직전 실망이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 생각 이상으로 많은 농가가 참석해주었습니다. 8,000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모였는데 7,000명 가까운 인원이 한우 농가들이었습니다.

어떤 농가는 도지회 차원에서 집회에 불참해

후계자인 자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운집한
농가들을 보면서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협회 지도부가 농가를 위해
맡은 책임을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8.11 집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청와대 비서관
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 세 가지 건의안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국내산 축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한시적 할



당관세 운용 중단을 요구하였고, 경종 농업
비료 지원사업과 같이 사료도 지원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납 축산물의 경쟁 입찰제를 폐지하고 국내
산 로컬푸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할당관세를 통해 사라질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들여 소비 쿠폰 형식으로 우리 농축산물
구매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면 소
비자들의 부담도 줄고 우리 농식품의 판매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도 할당관
세 중단은 하지 못했지만, 축산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소비쿠폰 예산을 우선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
식품부 등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철을
위해 비대위를 해체하지 않고 지속해서 정부
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솟값 하락이 점쳐지고 있고 이상 현
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 추석 밀이기 때문에 음성공판장 등에서
최대한 소를 잡아줘야 하는데, 가동률이 떨
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솟값이 상승하는 등 전망
과 다르게 솟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도축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
해 작업 물량이 줄고, 운송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
석 때 도축되지 못한 물량이 하반기 가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
서는 한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점진
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외부적 요인이 추가적으로 나타

난다면 1만7000원/kg대가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 거세 2등급 한우
경락가격이 1만4000원대/kg가 나오기도 했
었는데,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협회에서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포함
해 수급조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
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올해와 내년 사업이 2~3년 뒤
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농가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격 하락은 소규모 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져
사육기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우리 한우
산업의 매우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우리 한우농가가 9만 호가 있다고 하는
데 80~85%가 한우와 경종농업을 겸하는 복
합영농을 하는 분들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소
규모 농가가 폐업을 한다고 하지만, 더 자세
히 뜯어보면 고령농들이 은퇴를 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대
부분이 고령농이기 때문에 농가 수는 자연적
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령농들이
소를 키우는 이유는 소득을 올리기 위함도 있
지만, 순환농업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소
에서 퇴비를 얻고 수도작과 같은 농사를 지었
는데, 그분들이 은퇴한 자리를 차지한 농부들
은 힘들고 고된 순환농업이 아닌 화학비료를
활용해 쉬운 영농을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합영농을 하는 고령농 대부분은 영세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우산업을

위해서도 농촌의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금 고령농을 대체할 새로운 주체
의 육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정활동이 조금
씩 빛을 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전 약속을 이행해 법
률안을 상정하였고, 여당인 국민의 힘도 조만
간 법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한우산업은 타 품목보다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축산 관련 법률은 1970년대를 전
후해 만들어졌고, 1990년대 대부분 개정이
이뤄졌으나 한우는 2000년대 와서야 산업화
가 이뤄지면서 현행 법률체계가 한우와는 맞
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한우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은 필
연적입니다.

벌써 십수 년 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
시 했던 일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대기업이
축산업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는 것 그리고 대학교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 관련 학과들을 줄인 것이고 그다
음이 중앙부처에 축산직공무원을 새로 뽑지
도 않고 있는 공무원들도 타부서로 홀트려 놓
은 것입니다.

법률 하나 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비정
상적인 행정을 되돌려 놓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지 않으면 축산행정, 한우 행정의 정상화
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남은 임기 축산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집
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들

위기의 순간마다 한우농가를 위해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전국한우협회의 역사

1999

위기 속에 출범한 전국한우협회

한우 사육두수 증가, 쇠고기 수입확대, 외환위기에 따른 사료가격 폭등,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시장 전면개방 등. 한우농가의 위기감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한우농민을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 1999년 비로소 전국의 전업 한우농가가 규합하여 한우농민을 대표하는 '전국한우협회'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2005

한우자조금 도입

생우 수입 반대 투쟁은 전국의 전업 한우농가를 하나로 결집시켰다. 이 힘을 바탕으로 협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조금법 제정과 한우의무자조금 도입에 성공하며, 한우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2001

쇠고기 및 생우 시장 개방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시장 개방은 곧바로 생우 도입으로 이어진다. 호주산 생우 도입에 반대하는 한우농민들의 집회가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시작되었고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입소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2008

쇠고기이력제

한미FTA 협상 전결과제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 확대가 제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우협회는 국민 먹거리 안전 투쟁전선에 나선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허용되면서 광우병 이슈가 발생해 한우소비까지 침체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의 시행, 쇠고기 이력추적제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고, 소비촉진을 위한 11월 1일 제 1회 한우의날 기념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이 시작됐다.

2010~2011

구제역

2010~2011년 구제역의 전국 확산에 따른 한우의 이동금지, 우시장 폐쇄 속에 한우 공급 증가가 중첩되면서 한우가격 폭락사태를 경험한다. 이 시기에 많은 중소농가가 폐업하는 등 부작용을 낳게 된다.



2016

한우부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협회는 한우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출하에 여러 제약을 두었던 농축협의 출하예약제 관행에 개선과 농축협과 거래하지 않는 농가도 협회를 통해 음성공판장 출하를 가능토록 했다. 부산물을 취급하지도 않는 단체나 기업에 수익계약으로 한우부산물 유통권을 부여했던 관행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부산물이 유통하도록 하면서 유통 거품을 줄이고 한우 부산물 가격이 정상화 하도록 하는데 성공하면서 부산물이 제값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부청청탁금지법개정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한우를 사치품, 뇌물로 인식시키는 나쁜 법률이었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뇌물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한우가 명절 선물에서 외면 받게 되었다. 협회는 강력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대규모 집회와 국회의원 면담 등 지속적인 개선 요구 끝에 선물가액을 두배 상향시키는 법률개정을 이뤄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우 사육두수 및 공급량 증가 국면에서도 한우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돼 농가수취가를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



2022

식량안보 수호 농가 경영안정화 주력

한우산업은 단일품목으로의 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분야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CPTPP, 축산물 수입 무관세 등 정부의 수입편의주의적인 식량안보관을 강력 규탄하고 농축산업 수호에 나서며 농축산업 지도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사료가격 급등과 한우가격 하락우려라는 최악의 환경속에서 버텨온 농가들의 현실을 호소하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우공감
최군식 대표

글·사진 박현욱 기자
(농축유통신문)

온라인 한우인 플랫폼 한우공감

“십시일반(十匙一飯)
천원 모았더니 큰 힘 됐어요.”

한우인 '저력·결집'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증명
한우산업 어려움 빠질 때마다 통큰 성금 '채척'
포털서 찾기 힘든 고급 축산 정보 망라 회원↑
현장 어려움 품앗이...사육 정보 공유로 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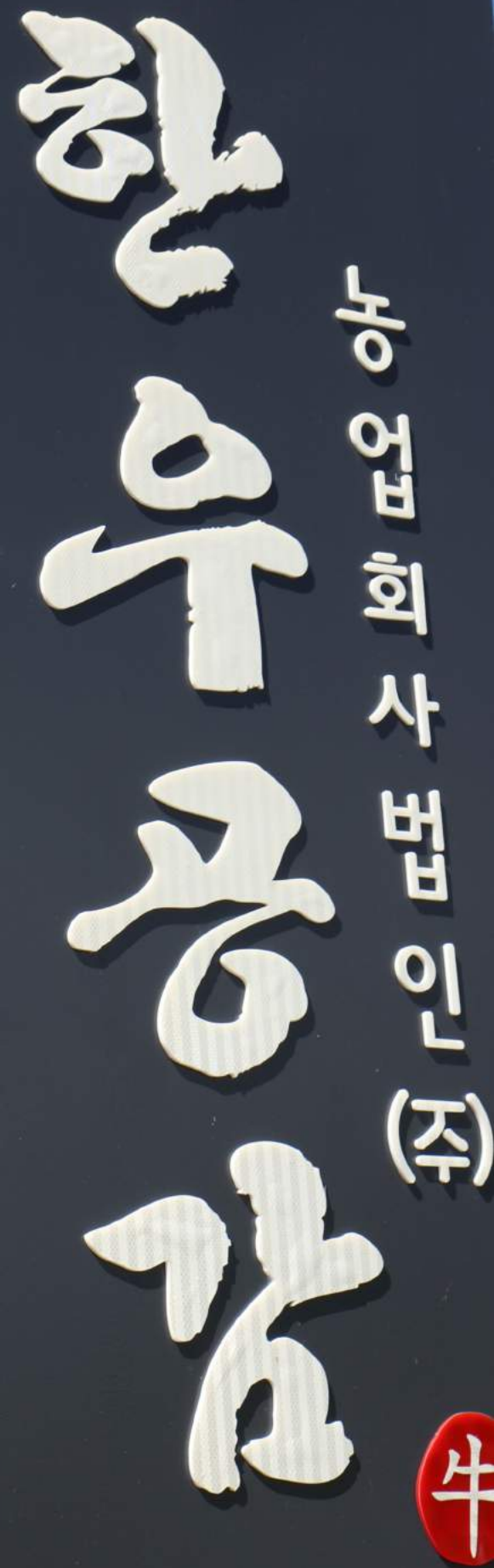


8월 11일 서울역 광장.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이곳에 모였다. 무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치솟는 사료값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날씨도 변덕스러웠다. 오전에는 빗방울이 쏟아지더니 시위가 무르익자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굼은 땀을 흘리며 시위하는 농가들은 때론 목청 터져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이날 수많은 축산 농가들이 선봉에서 세를 과시하며 정부 압박에 나서기도 했지만 숨은 주역들도 있다. 이날 시위를 측면에서 지원한 전후방 산업 한우인들이다. 이들은 전국에 암약하면서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집회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조달, 축산 농가들의 결집을 증명해 냈다. 특히 한우인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한우공감' 회원들은 이 집회에 500만 원을 쾌척해 풀뿌리 농가들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우마당은 한우공감을 운영하고 있는 최군식 한우공감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주>

“축산 농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는데 조금 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한우공감 밴드 회원들에게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응원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게 2016년이다. 천 원씩 고사리 같은 성금이 쌓이니 큰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어느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다. 농민 스스로 한우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작은 바람이 모인 결실이었다.”



한우공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인 최군식 대표



2016년 최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한 ‘천 원의 행복’ 캠페인은 한우공감 밴드에서 시작된 행복 프로젝트다. 매달 1천 원씩 모아 한우산업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지만 지원금을 보태자는 취지다. 2017년 전국한우협회가 농협의 적폐 청산을 외치며 선봉에 섰을 때도 들불처럼 일어난 한우 농가들을 위해 당시 한우공감 회원들은 이 기금을 활용해 협회에 5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축산 농가의 시위에서도 든든한 지원금을 보내와 업계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줬다는 평가다.

“절실함·절박함·간절함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든 함께하는 마음을 전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이번 집회에 비록 참석은 못 하지만 물 한 모금이라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다. 당초 취지가 그렇다.

앞으로 축산업에, 한우산업에 또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생존권을 외쳐야하는 시기가 있다. 그때마다 돕고 또 도울 것이다.”

한우공감 플랫폼 회원 수는 약 1만 1천 명 규모로 온라인 카페나 밴드 규모로는 회원 수가 제법 많다. 축산 특히 한우 카테고리로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이곳은 한우 농가나 전후방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 밴드는 한우 사육 시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풀어놓는 등 한우인들의 사랑방이라 불려도 손색없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가령 새벽에 난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암소가 있었는데 이 상황이 밴드로 공유되고 마침 동물 병원 원장과 연결돼 새벽녘 한걸음에 달려가 순산하도록 도와준 일도 있었다. 어렵게 태어난 송아지 초유까지 먹이고 왔다.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온라인에서 펼쳐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점이 한우공감 플랫폼의 힘인 것 같다. 그렇게 회원들 간 돕고 돕는 한바탕 품앗이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모임의 회원관리도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광고를 전문하는 업체가 끼어들거나 온라인상 불화로 다투는 일까지 발생해서다. 최 대표는 엄격한 회원관리로 회원 수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회원들이 참고할 만한 글을 두 글자의 태그로 제한하고 카테고리를 나눠 구획을 정리하는 것도 최 대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노하우라고 말한다. 섬세한 관리뿐만 아니라 한우공감의 가장 큰 장점은 한우 사육의 전문성이다. 포털을 검색해서 추출할 수 없는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사육 노하우들이 게시돼 회원들에게 쓸쓸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가축인공수정업에 42년 가까이 종사하다 보니 농가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 저 또한 많은 정보들을 게시하고 피드백 받고 공부가 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온라인 카페 등 SNS 힘의 중심이 데스크톱 중심이었는데 온라인 트렌드가 바뀌고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면서 밴드를 개설하게 됐고 많은 한우 농가들의 참여로 이제는 어엿한 장수 밴드로 살아남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최 대표는 이제 미래를 준비 중이다. 이제 농가들도 단순한 글과 사진보다 역동적인 영상을 통해 정보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발달로 각종 개인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축산업도 본격적인 영상시대로 진입했다는 게 최 대표의 귀뜸이다. 최 대표는 각종 장비를 갖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는 기술을 갖춰나가고 있다. 실제 농장 한편에는 방송 설비를 갖추고 영상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 “농가 군집 효과”라고 설명하는 최 대표는 “축산 중 가장 많은 농가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우는 그만큼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축산 농가 그중에서도 한우 농가가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유 중 하나는 바로 한우인의 결집에 대한 저력과 연대와 협동, 스스로를 돕는 자조 의식이다.

“지금까지 모든 시위나 집회를 보면 한우 농가들이 선봉에 서지 않은 적이 없다. 축산 농가 중 한우 농가수가 가장 많다. 정부에서 무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했을 때도 가장 깃발을 높이 든 축종이 한우였다. 과거부터 농가들의 결집, 농축산업을 지키는 의식은 한우 농가들이 가장 돋보였다. 한우공감 플랫폼 구성원을 보더라도 어려운 이웃은 돕고 서로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농가들이 바로 한우농가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9만 한우 농가들의 저력을 믿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연대와 협동으로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우식당 기행(9)

고산미소한우
화성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79-29

영업시간 : 11:00~21:00
휴일 : 추석 및 설 명절 당일 하루

수도권 진출 성공신화 쓴 ‘고산미소한우 화성점’

초기 부진 털고 ‘프리미엄 한우매장’으로 자리매김

고산미소한우 화성점은 전북의 1호 한우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국원호)이 완주군 고산면의 ‘고산미소한우’ 본점에 이어 개점한 2호점 식당이다.

지역의 면 단위 한우식당이라는 불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개점 첫해인 2013년 8월부터 하루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한우업계의 성공신화를 써 내려간 고산미소한우는 2015년 화성점 개점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 공략에 나서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특히 화성점은 한우자조금의 ‘알뜰판매장 1호점 사업자’로 선정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2022년 개점 7년 차에 접어든 ‘고산미소한우 화성점’의 성장 스토리다.



수도권 진출 ‘모험의 길’을 선택하다

- 1 지역의 한우 브랜드 식당의 수도권 진출을 성공시키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이지현 고산미소한우 화성점 점장.
- 2 고산미소 화성점의 내부 전경 모습.
- 3 프리미엄한우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화성점은 근간지방등의 손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산미소한우의 수도권 진출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모험이었다. 국내 굴지의 한우브랜드와 축협들이 서울과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매장을 개점하며 공을 들였지만 수도권 지역 텃새와 높은 임대료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혔고, 결국엔 줄줄이 매장을 철수하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고산미소 화성점이 전체면적 641㎡(1,943평)에 2개 동으로 지어진 건물을 직접 매입한 것도 이 같은 사례와 무관치 않았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수도권 진출 성공을 위해 군비 3억 원, 자조금 2억 여원 지원과 자부담 21억 원 등 총 24억여 원을 투입해 웨딩하우스로 사용되던 식당 건물을 직접 매입했다.



임대로 문제를 덜면서 초기 경영 부담을 낮추긴 했지만, 매장 운영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고산미소 화성점의 위치는 차들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약 250여 미터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띄는 장소는 아니었다. 대로변 입구에 세움 간판을 세워두긴 했지만, 각종 도로공사가 진행될 때 마다 철거해야 해서 식당 홍보에 적잖은 애를 먹어야 했다. 당시 화성점 운영을 총괄했던 박일진 전 완주한우협동조합 총무이사과 이지현 점장은 식당 주변에 일일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화성시의 각종 단체와 여성모임, 동호회 회원 등을 초청해 '한우이야기'라는 주제로 소비자 간담회를 주재하며 '한우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매개의 장'으로서 고산미소한우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본점 성공 전략 그대로 도입했지만.... 화성에선?

고산미소한우 본점의 성공 전략은 화성점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의 한우농가가 직접 생산한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이윤은 생산자들의 소득 보전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더 좋은 가격에 한우를 팔고, 소비자는 시중의 한우식당보다 20~30% 싸값에 좋은 한우를 즐길 수 있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윈윈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하지만 화성점에선 본점의 성공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양질의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한우농가 직영식당의 최대 강점을 적극 알렸지만, 화성점에선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15년 10월 개점 이후 매출은 감소세를 면하며 유지되었을 뿐 이렇다 할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수도권 진출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화성점이 1년을 넘긴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실패를 단언하는 이들도 생겼다.

하지만 완주한우협동조합과 본점 식당을 성공의 반석에 올려놓은 초대 조영호 조합장과 박일진 총무이사 등은 수도권 진출을 성공시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출구 전략에 머리를 맞댔다.

수도권 시장에 맞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탈바꿈

화성점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 건 식당 매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에 있었다.

박일진 이사와 이지현 점장 등 관계자들은 화성점의 등급 및 부위별 매출 추이와 방문객들의 평판을 면밀히 분석하며 판매량이 증가하는 상품군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상품군과 그렇지 못했던 상품군을 점검하며 판매 부위와 구성을 리셋해 나갔다.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점의 경우 윗등심과 아랫등심, 등급에 상관없이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 화성점은 '아랫등심' 선호가 두드러졌다. 등급의 경우 1++등급 가운데서도 8번과 9번 등급의 매출 비중이 높았고, 국거리와 불고기도 1++등급 상품의 평판이 좋았다. 특수부위 소비가 많지 않은 본점과 달리 화성점은 토시살, 안창살 등 특수부위를 찾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찾았다.

“한 점을 먹어도 좀 더 맛있는 한우, 100g에 1~2만 원을 더 주더라도 가장 맛있는 한우를 먹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방문해도 안창, 토시 등의 특수부위가 항상 구비되어 있는 곳, 화성점에는 그런 한우 판매점이 필요했습니다.”

이지현 점장의 말이다.

실제로 화성시는 SK매직, 현대트랜시스, 로알앤컴퍼니를 비롯한 해병대 사령부 등 굴지의 국내 기업과 부대가 포진해 있는 데다 국가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20개가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제조업이 진출한 기업도시이다.

이지현 점장은 “2021년을 기준 해 화성에 소재한 공장이 1만 1천여곳에 달했다. 중견기업 CEO와 관계자들이 찾는 고품격 한우고기 시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naver blog_moyeu119



2020년 코로나... 도약의 기회가 되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는 화성점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했다. 화성점은 대로변과 한참 떨어진 데다 주위에 너른 공간의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한적한 곳을 찾는 소비자 요구와 맞아 떨어졌다.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상품군을 재구성하면서 1++등급 가운데서도 8, 9번 등급만을 비유전자변형(NON GMO) 방식으로 사육된 한우고기만 취급하면서 ‘프리미엄 한우’를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고산미소한우 화성점’은 프리미엄 한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라는 정보가 공유되면서 재방문이 늘었다. 여기에 화성점을 찾았던 고객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직접 고산한우를 홍보

하면서 화성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전문점’으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식당운영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식당은 망하는 거고, 꾸준히 반영하고 노력하면 살아남는 거죠. 고산미소 화성점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방문객들의 요구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소비자들이 찾는 식당을 만들게 된거죠.” 이지현 점장은 화성점의 성공비결을 이같이 분석했다.

프리미엄 시장 진입 단계... 완성 이뤄내고파

현재 화성점에선 등심 100g 기준 2만 원에 판매한다. 고산미소 본점과 약 2배 차이가 난다. 아랫등심만을 지방을 모두 손질해 판매하는데, 윗등심, 아랫등심을 섞어 판매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이러한 가격과 판매방식이 훨씬 호응이 높다. 불고기와 국거리도 1++등급만을 취급한다.



다양하다 할 만큼 많았던 점심 메뉴들도 갈비탕과 불고기가 나오는 미소한상(한정식, 1인당 2만 원)으로 대폭 줄이며 간소화했다. 특별한 날 한우고기를 찾는다는 컨셉에서 착안해 개발한 한우 케이크(900g, 25만 원)도 화성점의 특별한 메뉴다. 화성점은 지난해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등 개점 7년만에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수도권 진출에 성공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이지현 점장은 이제 막 프리미엄 한우식당의 시작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를 완성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시간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객과 시장을 알았으니까요. 화성점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완벽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완주한우협동조합 모두가 공동의 목표로 힘을 합해주길 바랍니다.”



한우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오해

축산 VS 운송수단 온실가스 배출량

① 계산법 기준이 다릅니다

축 산 "생애주기 전 과정" 계산

운송수단 "제조를 제외한 연료의 양"만 계산

2 진실

동일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다면?

세계 공통보고 방법에 의해 계산하면!

①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3

그리고 한우는 농업부산물이나 대두박을 사료로 먹음으로써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개선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발생을 막습니다!

4

한우산업이 사라지면 다른 산업에 피해를 끼쳐요!

한우는 여러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5

한우 부산물 어떻게 이용될까?

털 에어필터, 브러쉬, 벨트, 천, 단열재, 깃스	지방 감, 의약품, 화장품, 양초, 크레용, 세제, 섬유유연제, 향수	피 파스타, 염료, 접착제, 의약품	분뇨 비료, 토양개선탄, 신재생에너지
뼈 정제설탕, 유리	뿔, 발굽 접착제, 깃스, 사료인화기	가죽 젤라틴, 캔디, 조미료(향료), 의약품, 벽지, 접착제	내장 약기름, 테니스 라켓 줄,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6

한우에 대한 편견은 NO! 환경과 한우,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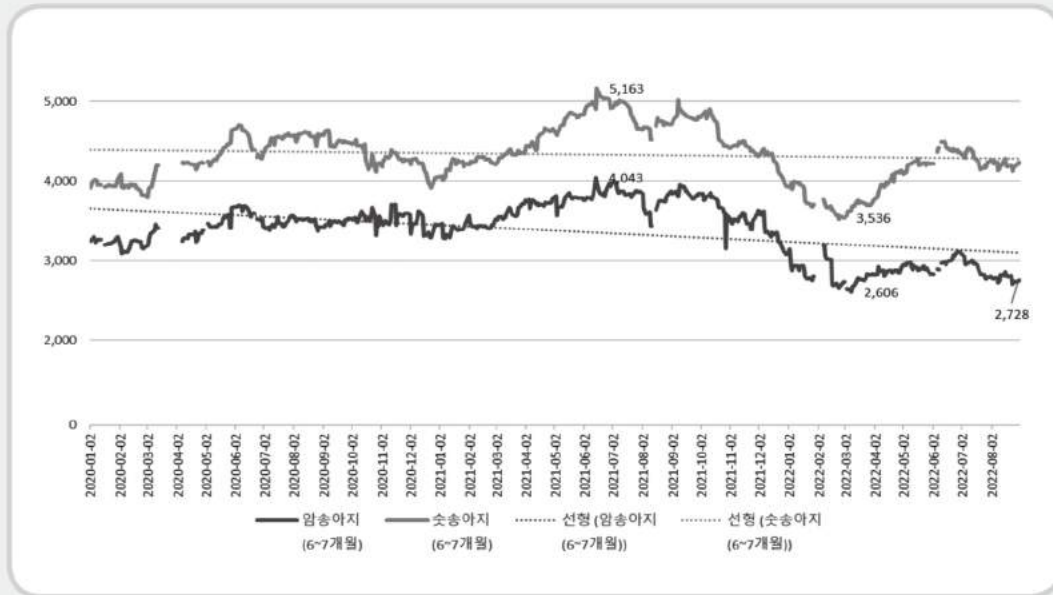
*출처: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박규현 교수), 2022년 「전과정 측면에서 한우의 환경적·산업적 특징 연구」

컨설팅을 통한 미경산우 비육

글. 지엠디컨설팅

최근 암송아지 가격하락과 함께 미경산우 비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는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가임암소수 조절도 영향이 있겠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생산비 미만의 암송아지 가격 하락이 원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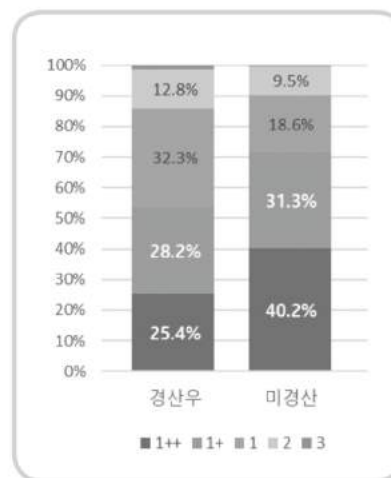
구분		육성비육기 (6~15개월령)										큰소비육기 (16~24개월령)										비육마무리 (25개월령~출하)						
생후월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표체중(kg)		170	190	210	230	250	270	295	320	345	370	395	420	445	470	495	520	545	570	595	615	630	645	660	675	690		
사료 급여 량 (kg/일)	농후사료	육성비육	3.5	3.5	4.0	4.0	4.5	4.5	5.0	5.5	6.0	6.5	3.5															
		큰소비육												3.5	7.5	8.0	8.0	8.5	8.5	9.0	9.0	9.5	4.5					
		마블링																					5.0	9.5	9.5	9.5	9.0	9.0
	조사료	양질조사료	3.0	3.0	3.0	3.0	3.0	3.0	3.5	3.5	3.5	3.5	3.5															
		벤티급여시	3.0	3.0	3.0	3.5	3.5	3.5	3.5	3.5	3.5	3.5	3.5	3.0	3.0	2.5	2.5	2.5	2.5	2.0	2.0	2.0	2.0	2.0	2.0	2.0	2.0	
사양관리요령	단계별 사양	튼튼한 밀소 만들기 ※ 골격, 반추위 발달, 과비방지 ※ 적정 사육밀도 유지 - 힘센 개체 농후사료 골라먹기로 증체량 차이 발생											근육완성 및 지방 교잡기 ※ 골격과 근육발달을 위한 사료섭취량 유지 ※ 반추위 기능 정상적 유지 ※ 농후사료 증량급여, 조사료 서서히 감량										육질 마무리기 ※ 마블링 최대화 ※ 대사성질병(식체, 고창증) 예방 ※ 초음파 육질결과와 섭취량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출하시기 결정					
	공통관리 사항	※ 사료조, 물통, 바닥, 깔짚 청결유지 ※ 군집별 모니터링 실시 ※ 매일 번 상태 및 비경 등을 관찰 후 문제 발생시 조기치료											※ 사료 교체시 적응기간(2~3주간, 5:5) 준수 - 큰소비육 15개월 전후, 비육후기 24개월 전후 목표체중을 고려하여 사료교체 여부 결정 ※ 비육전기 입단함 현상 예방을 위해(바이오버퍼, 중조) 두당 50g 내외 급여 - 큰소비육사료를 급여하는 생후 16개월령 전후부터 급여 권장															

산지 송아지가격 현황

미경산 암소비육의 의미는 한우산업 측면에서 적정두수를 유지한다는 측면, 우군의 엘리트화(우수 축만 번식우 육성), 소고기 시장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농장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육성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창출, 가임암소의 엘리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장경영적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암소 경산우와 미경산우 육질등급 출현율

위의 표를 통해 확인 하더라도 미경산 비육은 일관 및 번식농장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경산 비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량이 반영된 도태 계획 즉 비육대상 암소의 선정일 것이다. 경산우 비육의 경우 이미 몇가지 지표들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경산 비육의 경우 그 지표가 더욱 한정적이다. 결국 송아지의 외형, 부모의 유전력, 형매 중 암소의 존재 여부 등이 그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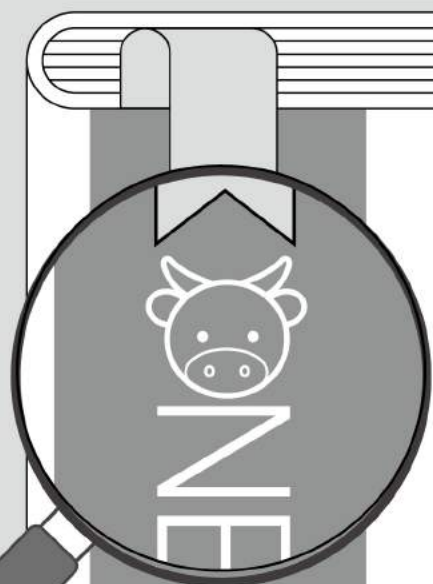


미경산우 비육 프로그램

미경산 비육시 급여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전체적인 구간 및 중점관리 사항은 거세우 프로그램과 동일 하나 일반적으로 암소의 체형이 거세우에 대비하여 작기 때문에 다소 낮은 급여량 (0.5~1kg 하향)을 급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육성비육기와 번식우 육성시의 차이는 기간 중 사료량 증량에서 약 1.5~2.5kg 정도 급여량의 차이가 있는데 육성비육에서 번식우 전환은 어려우나 번식 육성과과정에서 비육으로 전환 한다면 증체가 부족하여 출하월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비육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난소 적출여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적출을 하지 않거나 첨가제를 통한 발정억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증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호르몬 작용과 관련하여



지방축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육질등급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시술비용과 첨가제 비용 증체량의 손실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일로 판단 된다. 암송아지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경산 비육은 농장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번식률과 육성율이 높은 상황에서 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POINT
LESSON

모든 것의 시작



이중현 농학박사
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홍성축협 등록우 경매시장을 가다

1. 머리말

홍성은 예로부터 축산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백제 시대에는 결기군 아래 마시산군의 영현인 우견현(牛見縣:소를 볼 수 있는 지역-홍성군 갈산면)으로 불렸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결성군 산하 이산군의 영현이었던 목우현(目牛縣:소가 나타나는 지역-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일대)으로 불렸는데 글자 그대로 '소가 나타나거나 소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소를 많이 사육했던 지역으로 전해진다(홍성문화원 인터넷 자료 참조).

예나 지금이나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현대의 사양기술이 접목되면서 오늘날의 한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1> 2007년 12월 광천우시장-YTN인터넷자료

2022년 7월 현재 축산물품질관리원의 소 이력제 자료를 참고하면 정읍시(99,179두), 상주시(91,985두), 경주시(69,628두), 청주시(69,507두), 홍성군(64,884두), 횡성군(64,338두)순으로 전국의 시·군중에서는 5위이며 시를 제외하고는 홍성과 횡성이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다.

특히, 홍성의 광천 우시장과 횡성 우시장은 옛날부터 전국에서 한우의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2. 시장에서 듣는 이야기

가. 외지에서 온 사람

경북 안동에서 홍성 등록우 경매장으로 송아지 20두를 위탁받아 사러 온 신현욱 씨는 송아지를 비싸게 사는 사람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 잘 배워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수송아지는 발굽이 튼튼하고 좋아야 비육 종료 시에 90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발굽이 약하거나 지체가 강하지 못하면 자기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육 말기에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250kg의 송아지가 400kg의 송아지보다 더 크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송아지는 골격(뼈대)을 잘 보아야 한다.

송아지의 현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대의 암소가 잘 개량되어 있다면 육질도 좋고

■ 발굽과 다리의 상태



<사진2> 갈라진 앞발굽 상태-필자 촬영

육량이 많은 송아지를 만들어 내지만 근본적으로 암소의 개량이 미흡하다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진2」를 보면 앞발굽이 갈라지고 물까지 고여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발굽 삭제와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았으며 오른쪽의 발톱은 갈라진 부위가 평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올라붙어 있다. 송아지 때에는 이런 상태를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송아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걱정스럽다.

이와 함께 앞쪽 어깨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각도는 일직선으로 곧게 내려와야 하는데 앞 어깨가 심하게 돌출한 송아지도 경매장에서는 송아지의 가격이 500천원 내외로 떨어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같이 송아지 가격이 하향추세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높은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발굽도 중요하다.

나. 초보 사육자를 배려하는 마음

등록우 경매장에서는 누구나 좋은 송아지를 고르려고 한다.

그러나 한우 사육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경매시장에서 송아지를 고르는 일이 매우 걱정되는 과정이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큰일이 될 것이다.

우시장의 분위기도 살피고 송아지도 살펴볼 겸 해서 조금 일찍 경매장에 도착했는데 누가 보아도 초보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차림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

보통 경매시장에는 장화나 작업화를 신고 나오는데 흰색의 신발을 신고 나온 젊은 이들이 보였다.

이들은 경매전에 배포하는 자료도 살피고 송아지도 살피면서 분주하게 다니는데 아마도 암송아지를 살 계획인 것 같다.

「사진3」의 뒤쪽에 젊은 부부인 듯한 네 명이 열심히 송아지를 살피면서 경매자료를 보고 있는데 경매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았으나 새

로이 시작하는 모습 같아서 관심을 두고 지켜 보았다.

한우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 들떠서인지, 아니면 경매장에 처음 나온 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송아지를 살피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자기들이 직접 시장에 나와서 소의 상태를 살피고 키울 송아지를 고르는 일은 한우 사육의 기본이며 좋은 송아지를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최근 모습을 보면 송아지를 입식·출하·운송까지를 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은 소를 보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누구네 송아지는 사료를 무제한 먹이는 농가이며 누구네는 정액을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까지 훤히 알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현장에 있는 송아지의 상태뿐만 아니라 번식 농가의 특징에 따라 송아지를 판단하니 누구보다도 송아지를 잘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들의 송아지를 경매 대행한 사람을 찾아보

니 ‘경민한우’라는 입식·운송 전문가인데 형은 입찰을 보느라 바쁘고 동생은 경매한 송아지를 입식·운송 한다고 했다.

이선우씨는 오늘 경매한 암송아지 중에서 91번은 ‘KPN 1212’의 송아지이며 할아버지는 ‘KPN 872’라며 씨수소의 혈통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정액은 참고 사항이며 소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정란의 송아지를 사는 것도 좋다고 했다.

시장에서 자기 형은 송아지 경매를 보며 본인은 경매받은 송아지의 입식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 젊은 분들에게 송아지 설명도 하며 경매까지 참여해서 송아지를 사 주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는 동생들인데 오늘 암송아지 구매를 부탁해서 송아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경매까지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본인도 송아지 고르는 일과 낙찰된 송아지를 한우농가에 운송해 주는 등 매우 바쁘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송아지까지 구매해 주니 처음 한우 사육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마치 등댓불 같은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실제 등록우 경매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송아지를 구매하는 분들은 자기만의 비결이 있지만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장사하는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송아지를 잘 보는 기술이 본인들의 장사밑천인데 함부로



전문기술을 전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시장에 가보면 여러 전문기술자마다 자기가 터득한 기술과 비법으로 송아지를 고르고 있다. 좋은 기술을 배워서 한우농가에 널리 알려주고 싶으나 전문가들은 선불리 마법의 보따리를 풀어내려 하지 않는다.

이런 핵심 기술을 터득하려고 필자는 수없이 많은 우시장과 경매장을 다니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이나 비법이 있으면 배우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선우 씨는 송아지를 볼 때 소의 체형을 본다고 하면서 체장과 체고를 보고 가죽이 얇고 부드러운 주름이 많은 송아지가 좋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가는 축사를 비워놓으면 빈 축사를 다시 돌리기까지 오래가게 되니 송아지 가격이 비싸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송아지를 사서라도 축사를 계속 활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3> 암송아지를 살펴보는 젊은 부부들 - 필자 촬영



<사진4> 경민한우 이선우 - 필자촬영



<사진 5>
입찰 최저가격과 낙찰가격-필자 촬영

다. 경매 안내판을 잘 살펴보자!

「사진 5」에서 보면 경매번호 135번과 136번이 나란히 붙어 있다. 수송아지로 생년월일은 2022년 01월 17일로 같은 날 태어났다. 씨수소는 135번은 KPN 1216이며, 136번은 KPN 1329번이다. 씨수소의 능력으로 보면 KPN 1216이 약간 좋으며 신뢰도가 높다. 어미 소를 보면 135번의 어미가 고등등록우 이며, 136번의 어미는 혈통등록우로 어미소의 체형 점수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등등록우:외모심사 80점 이상). 135번은 8계대의 3산차 이며 136번은 5계대의 1산차로 135번이 계대수도 높으면서 3산차의 송아지가 1산차의 송아지보다 더 좋은 송아지이다. 이상의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본다면 경매번호 135번 송아지가 유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격은 136번이 360만 원, 135번이 350만 원으로 10만 원 저렴하지만, 낙찰가격은 135번이 490만 원, 136번이 488만 원으로 뒤집혔다.

구분	냉도체중(kg)	배최장근 단면적(cm²)	등지방 두께(mm)	근내 지방도(점)	구분	냉도체중(kg)	배최장근 단면적(cm²)	등지방 두께(mm)	근내 지방도(점)
EPD	24.81	6.45	-0.5	0.55	EPD	20.09	4.48	-0.7	0.76
Acc	80	79	79	81	Acc	73	73	7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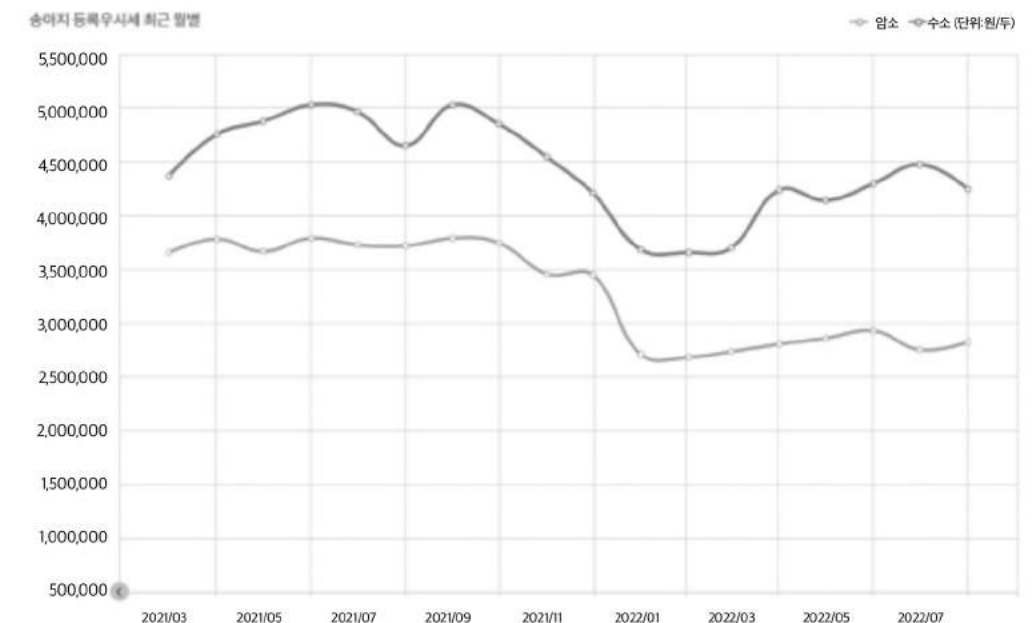
<사진 6> KPN 1216의 후대능력(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제공) KPN 1329의 후대능력(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제공)

경매에 출품된 송아지 체형이나 상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면 값을 더 높게 주고 송아지를 구매하게 되며 경매장에서 송아지를 사려는 농가에서는 게시된 자료나 미리 배포한 자료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3. 맺음말

최근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농가들은 불안하다. 송아지 가격은 지난겨울에 약간 하락한 후 지

금은 6개월 정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12월에는 송아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 「사진 7」은 흥성축협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연말쯤에 봄 송아지가 경매장으로 나올 때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8월 17일에 출품한 아지는 272두인데 그 중 암송지가 87두(32%), 수송아지는 185두(68%)로서 아직은 번식 농가의 암송아지가 적게 출장 되었는데 암송아지가 더 많이 나오는지 잘 보아야 하겠다. 소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며 여건의 변화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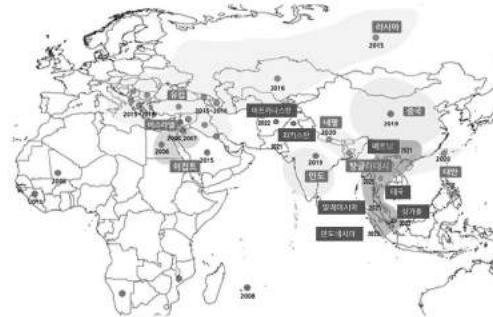
<사진 7> 최근 송아지 가격 추이(흥성축협 홈페이지 자료)



아시아 지역 주요 발생국, '19~'22.7

구분	'19	'20	'21	'22.7
서남 아시아	방글라데시 (7월)	네팔 (6월)	스리랑카 (9월)	아프카니스탄 (5월)
동북 아시아	인도 (8월)	부탄 (9월)	파키스탄 (10월)	-
동남 아시아	중국 (8월)	대만 (7월) 홍콩 (10월)	몽골 (8월)	-
		베트남 (10월)	라오스 (5월) 태국 (3월)	인도네시아 (2월)
		미얀마 (11월)	말레이시아 (5월) 캄보디아 (5월)	싱가포르 (3월)

대륙별 주요 발생국, '06~'22.7



럼피스킨병이란?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 피부 및 점막의 결절·궤양성 병변이 특징, 쇠약 때로는 폐사를 일으키며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소, 물소에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음

- 병원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 잠복기 최대 28일(세계동물보건기구)
- 폐사율 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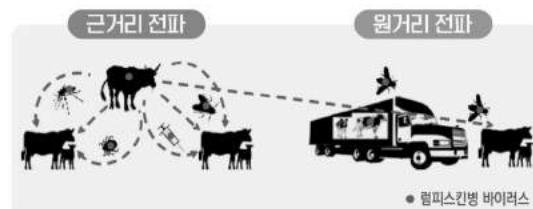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
* 럼피(Lumpy : 혹덩어리) + 스킨(Skin : 피부)

전파경로



주로 흡혈곤충 매개에 의해 전파되며
원거리 전파는 감염소 이동에 의해 발생

-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 파리류(침파리 등), 모기류(숲모기속, 집모기속 등), 진드기류(참진드기 속) 등에 의해 주로 전파
- 럼피스킨병 감염동물의 피부, 침, 분비물(눈, 코 등)과 직접 접촉,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 또는 오염된 매개물(급수통 등)에 의한 전파도 가능



* 출처 : Lumpy Skin Disease - A Field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주요 임상증상



피부결절(혹)이 특징적인 임상증상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 고열(40~41.5℃),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 피부에 지름 1~5cm 정도의 결절(단단한 혹) 형성
* 결절 크기는 다양(5cm 이상)할수 있으며, 병이 경과함에 따라 결절중앙에 딱지가 생기고 탈락하며 궤양화
- 피부 외 눈의 각막, 구강 점막, 소화기, 호흡기 등의 점막에도 병변(결절 등)이 나타남
- 눈, 코의 분비물 증가, 과도한 침흘림
- 임신 소에서 유산, 수소의 불임 등

감별진단이 필요한 주요 유사질병

- 파리·진드기 등 곤충 물림으로 인한 과민반응인 두드러기(Urticaria), 쇠파리구더기증(Warbles), 피부사상균증(Ringworm), 피부방선균증(Dermatophilosis), 소류코시스(Bovine leukosis), 유두종(Papilloma), 가성우두(Pseudocowpox), 소구진성 구내염(Bovine papular stomatitis), 우두(Cowpox), 가성럼피스킨병*(Pseudo-lumpy skin disease), 모낭충증*(Demodicosis) 등

*국내 미발생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의심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1588-4060/9060

임상증상(피부결절)

머리부위, 생식기 및 항문주변 등 털이 적은 부위에서 피부결절 관찰 용이, 중증인 경우 몸 전체에 피부결절 형성



주둥이 및 입술의 궤양성 병변



구강 내 궤양성 병변



기관 내 병변

소 브루셀라병 Brucellosis 방역관리

소 브루셀라병이란?

- 브루셀라균에 의해 소에 감염되는 **2종 가축전염병**
- **생식기 염증을 유발해 주로 임신 말기 (6~9개월)에 유산과 조산을 일으킴**
-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전염경로

- **감염가축의 출산부산물(양수, 태반 등), 비가열 우유, 오염된 사료, 물 등의 섭취에 의한 경구감염**
- 감염가축과의 **교미에 의한 생식기 감염**
- 점막, 결막, 상처난 피부를 통한 **접촉감염**

잠복기

- 보통 1~2개월이나, 12개월 이상도 가능

사람감염 예방수칙

-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제품, 익히지 않은 고기 및 부산물 섭취 금지
- 유·사산 송아지 및 태반, 감염소와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사용한 보호구 및 축산기구류 세척·소독 (단, 일회용은 소독 후 폐기)

예방요령

- 임신소는 임신기간동안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유·사산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인공수정 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철저히 세척, 소독**
- 축사 주변 및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1회 이상/주) 청소, 소독

- **농장내 구충·구서 작업**
- 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축사 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그물망** 또는 담장 설치

- **외부인·외부차량 농장출입 통제**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 농장 출입자가 농장 출입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 (일회용 방역복·덧신, 장갑 등)을 구비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출입 전·후 소독**

- **외부차량(사료·출하차량 등) 출입 전·후 철저한 소독**

- 외부인·외부차량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농장 내 비치하여 빠짐없이 기록

- 농장 간 기자재 공유를 자제하고, 공유할 경우 사용 전·후 세척 및 소독

발생농장 방역관리

- 발생농장의 동거축을 사육하는 농장주는 시장·군수 등이 안내하는 방역조치(재검사, 이동제한) 준수
- 감염소(감염의심소)와 접촉한 물건(건초, 깔짚, 사료 등)은 소각·매몰
- 축사 내 분뇨는 퇴비사에 모아 **생석회 도포** 후 비닐로 덮어 발효처리

소 브루셀라병 감염(의심)소 발생 시 우선 조치사항

- 유·사산한 소가 있을 경우에도 별도의 축사에 격리
- 유·사산태아, 태반 등 유·사산 관련 물질들은 다른 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하며 비닐장갑 등을 활용하여 위생처리 및 **즉시 소독 후 소각(매몰)·폐기**, 유산물 주변 환경 소독도 실시
- 관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 의뢰**

발생농장 세척·소독 방법

축사 외부

- 농장 진입로 및 축사 주변 등은 소독제가 바닥에 흠뻑 젖도록 소독
- 분변처리장(퇴비장)은 분변 제거 후 축사내부와 동일하게 세척·소독
-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

장비도구

-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과 장비는 세척 후 소독**
※ 분뇨 등 오염물질들이 닿는 곳(바퀴 등) 집중 소독
- 축사입구에 **소독조**를 두어 **삼 등 축사 내에서 사용한 기구들이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소독**
※ 소독조는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등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 사용
- (**젖소농장**) 착유시설의 파이프라인, 착유기를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소독

소 구입요령

소 구입 전 주의할 점

- 과거 브루셀라병 발생이 없었던 **음성농장**에서 구입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브루셀라병 등 국내질병 발생 여부 확인
- 시스템 홈페이지 (<https://home.kahis.go.kr>) 상단메뉴 중 **가축전염병발생정보 / 국내현황**
-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음성인 소만 구입**

소 구입 후 관리방법

- 소를 구입 후 이상유무 관찰
- 증상이 없으면 다른 소들과 합사
- 특히, 임신소는 분만시까지 유산 등 증상 관찰

청소·세척 작업을 한 후 실시해야 소독효과가 높으며, 재입시기전 30일 동안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

축사 내부

- 축사 내 분뇨, 사료, 깔짚 등 모두 제거한 다음 세척액으로 남아있는 오물을 씻어내고 건조시킴
- 천장, 벽, 바닥의 순서로 전체적으로 흠뻑 젖도록 소독(고압분무기 이용)
※ 과거 유산이 있었던 축사 및 2두 이상 발생 축사 등은 소독횟수를 2배로 늘려서 소독

김재경 원장의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많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헛갈리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들과 현재 '소앤소 김재경 원장'이라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우 농가들이 쉽게 질병이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원장님, 분만을 2주 정도 앞둔 만삭 소가 밥을 잘 안 먹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주사를 해야 할지, 그냥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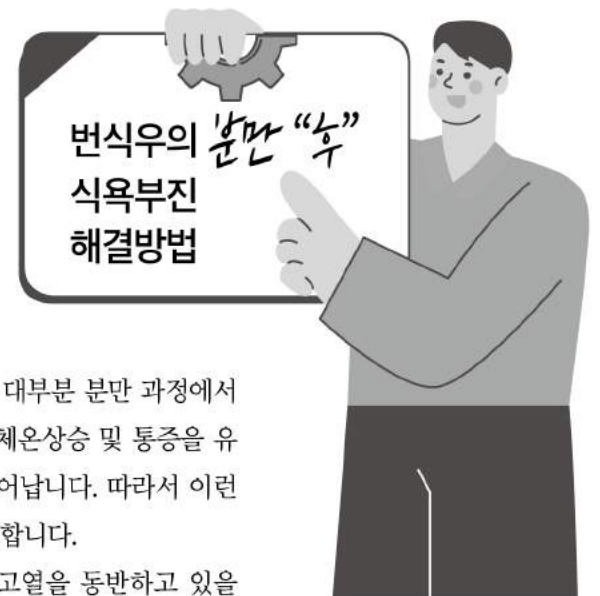
A 번식용 소가 임신말기 즉, 분만이 임박해 오면 간혹 식욕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 속에 있는 태아에 성장으로 인해 복강 내 위의 압박을 주게 되어 통증 및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좌측의 비장이 압박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태아 발육에 따른 노폐물의 증가로 간의 부담 또한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몸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액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되어 혈액 내의 고지혈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식욕부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간혹 5~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카르니틴”을 1일 1회 30~50cc를 4~5일간 주사해주고, 소화제인 “제스롱”을 1일 1회 20cc를 4~5일간 피하, 근육, 혈관 상관없이 주사하면 됩니다. 추가로 간 기능 강화제인 “네오헥사메치오닌”을 1일 1회 50~100cc씩 4~5일간 피하 또는 근육주사하면 좋습니다.

Q 원장님 저희 농장 번식우들이 이상하게 분만 후에 유독 식욕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원인과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요?

A 번식우의 분만 후 식욕부진 현상은 대부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식기의 염증으로 인해 체온상승 및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욕부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체온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의 정상체온은 38.5℃인데, 40도 내외의 고열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자궁 세척(소독)으로 후산정체 및 질염이 생긴 번식우



후산정체가 생긴 생간 번식우

그래서 항생제 및 소염제, 대사촉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항생제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다 보면 추후에 항생제 휴약기간에 문제가 되어 도축을 시켜야 하는 때에 농장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세프티오퍼(세파3세대)의 주사, 세파졸린, 세파랙신(세파1세대), 세파계열의 항생제를 선택해서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약 중에 선택해서 1일 1회 2~3일(심한 경우 4~5) 주사합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휴약기간이 짧아 약 48시간 이후에 도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케토프로펜 등)의 경우에는 체온이 상승한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해열진통소염제를 체온이 상승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지만 이 약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열진통

소염제를 4일 연속 주사했을 때에는 위출혈, 장출혈에 노출될 확률이 50% 이상이다. 따라서 가능한 1일 1회 최대 2일까지만 주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농가에서 해열진통소염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번식우가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장에서 자주 쓰이는 약 중 하나인 제스룽과 같은 소화제는 큰 부작용이 없어서 자유롭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생활 법률 정보 | Life Legal Information

상속 및 상속포기

상속 순위와 채무되물림 포기 방법



글. 우양태 변호사

사람이 사망한(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경우 살아있을 때의 신분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게(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출산된 친족)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에 해당하며(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함),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 역시 상속인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나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1003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포괄적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가 채권을 초과할 경우(채무만 상속받게 될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속은 재산 상속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상속받게 되지 않는데 이를 상속포기라고 하며,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역시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빚)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이 있으며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상속인이 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자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 등을 각 진행하여 상속에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인식 작가의

소가사는세상

**중국에서 43년 만에
자체 육우 품종 '확시'소를
선발, 본격 보급한다**

9500만두의

소를 사육하면서도 연간 230만톤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중국이 43년만에 독자적인 육우 품종 선발에 성공하였다고 중국 농업과학 위원회

(The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가 발표하였다.

'확시' 소(Huaxi Cattle)로 알려진 이 소 품종은 중국 내몽고 자치주 올라가이(Wulagai) 지역에서 농업과학위원회 축산 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품종으로 지난해 12월 중국 가축가금 육종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소품종 개발을 주도한 연구팀은 중국내 육우 품종개량에는 70%이상 외국 유전자원이 활용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소들의 생체중이나 도체중이 국제 수준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성우 수소인 경우 생체중이 900kg, 암소인 경우 550kg에 달하고, 도체율은 62.39%, 정육율은 53.95%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품종은 지난 1978년부터 우수 형질 선발을 위한 잡종교배를 실시하였고, 체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계획교배를 실시하여 유전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5세대 후손을 선발한 이 소품종은 중국 내몽고지역외에 허난성, 후베이성에 위치한 41개의 전용 목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연간 400두의 씨수소를 선발하여 60여개소의 번식사업소를 통해 향후 5~10년사이에 전국 육우 소품종의 70%를 번식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국내 소 도축두수는 2001년 3천8백만두에서 2020년 4천6백만두 규모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도축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체 소비량의 4분의1에 해당하는 230만톤의 소고기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생우 20만두내외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시민들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액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세(hometown tax)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 최고급 와규 한 마리 전체 부위를 선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한 지방자치 단체가 발표하였다.

일본내 최고급 와규 고급육 브랜드로 유명한 미에현 마츠자카(Matsusaka)시 정부는 지역내 유명 정육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1천5백만엔(1억4천만원)이상을 기부하는 개인에게 특수부위를 포함한 마츠자카 고급육 1두분 20개 전체 부위를 제공하는데, 1두분 중량은 213kg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향세로
1천5백만엔을 기부하면
한마리분의 와규 소고기를
보내준다**

시 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3억7천만엔(134억원)의 고향세 기부금을 거두어 지역내에서 최고 모금액을 기록한 이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종전 고급육 일부 부위 제공이나 건강검진 서비스외에 이러한 상품을 개발했는데, 한마리 분의 고급육은 연중 24회에 걸쳐 스테이크용, 불고기용, 일반 조리용으로 나누어 부위별로 배송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고급육 전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지역내 유명업체로 자체 농장을 보유하고 직접 최고급 와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자체에서는 고급육 외에 마츠자카산 소가죽으로 제작된 4만3천엔(42만원) 상당의 지갑과 2만5천엔(24만원) 상당의 소형지갑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내 고향세 기부액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6천724억엔(6조5천억원) 규모로 커져 완전 정착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답례품은 육류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였고, 어패류 및 해산물이 13.5%로 2위, 잡화 및 일용품이 12.5%로 3위, 과일류가 12.1%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

8월 한우동향분석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8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 전월 대비 증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율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4.59%, 전월 대비 0.70% 증가
- 가임암소는 전년 동월 대비 4.76%, 전월 대비 1.38%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3.04% 증가, 1세~2세 5.45% 증가, 2세 이상 5.01% 증가

(등급판정) 7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3.3%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 24.3%, 1+등급 : 25.1%, 1등급 : 24.0%

(도매 및 산지가격) 7월 한우 도매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하락, 큰 소 ·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2.8% 하락, 전월 대비 3.5% 하락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5.1% 하락, 전월 대비 3.2% 하락

(배합사료 · 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및 정액 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7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 7월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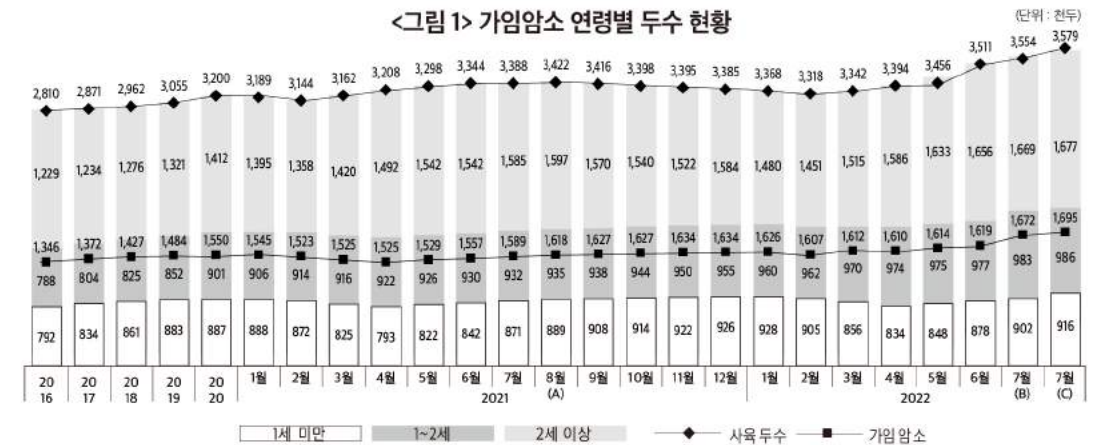
(쇠고기 수입) 7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전월 대비 15.0 증가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량 20.3% 증가, 냉장육 수입량 3.9% 감소

1. 한우 사육동향

☑ 2022년 8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율적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는 357만 9천 두로 전년 동월(342만 2천 두) 대비 4.59%(15만 7천 두) 증가, 전월(355만 4천 두) 대비 0.70%(2만 5천 두) 증가
- 가임암소는 169만 5천 두로 전년 동월(161만 8천 두) 대비 4.76%(7만 7천 두) 증가, 전월(167만 2천 두) 대비 1.38%(2만 3천 두)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3.04%(2만 7천 두), 1~2세는 5.45%(5만 1천 두), 2세 이상은 5.01%(8만 두)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 사육 농장수는 88,854농장으로 전년 동월(89,658농장) 대비 0.90%(804농장) 감소, 전월(89,016농장) 대비 0.18%(162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40.1 두로 전년 동월(38.2 두) 대비 4.97%(1.9 두) 증가, 전월(39.9두) 대비 0.50%(0.2 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A)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B)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C)	88,854	3,579	1,695	53.8	916	986	1,677	40.1
증감률	전년동월(C/A)	△0.90	4.59	4.76	△39.35	3.04	5.45	5.01	4.97
	전월(C/B)	△0.18	0.70	1.38	△19.10	1.55	0.31	0.48	0.5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7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7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2,065두로 전년 동월(56,153두) 대비 10.5%(5,912두) 증가, 전월(64,617두) 대비 3.9%(2,552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51.1%, 수소 0.6%, 거세우 48.3%

* 전월대비 : 암소 0.1%p↓, 수소 0.0%p-, 거세우 0.2%p↑, 거세율 0.0%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1.1~7월)	432,256	201,152	4,968	226,136	97.9
	100.0	46.5	1.1	52.3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금년누계 (‘22.1~7월)	466,267	220,454	3,629	242,184	98.5
	100.0	47.3	0.8	51.9	
전년동월 (‘21.7월)	56,153	27,693	544	27,916	98.1
	100.0	49.3	1.0	49.7	
전월(‘22.6월)	64,617	33,114	409	31,094	98.7
	100.0	51.2	0.6	48.1	
당월(‘22.7월)	62,065	31,699	396	29,970	98.7
	100.0	51.1	0.6	48.3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7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3.3%,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전월 대비 0.3%p 감소

• 7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4.3%, 1+등급 25.1%, 1등급 24.0%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3.6%) 대비 0.3%p↓, 1++등급 1.2p↑, 1+등급 0.4%p↓, 1등급 1.0%p↓

- - 전년 동월(73.2%)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1%p↑, 1++등급은 2.1%p↑, 1+등급 0.2%p↓, 1등급은 1.7%p↓

- - 전년 누계(74.1%)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8%p↑, 1++등급은 2.4%p↑, 1+등급은 0.4%p↓, 1등급은 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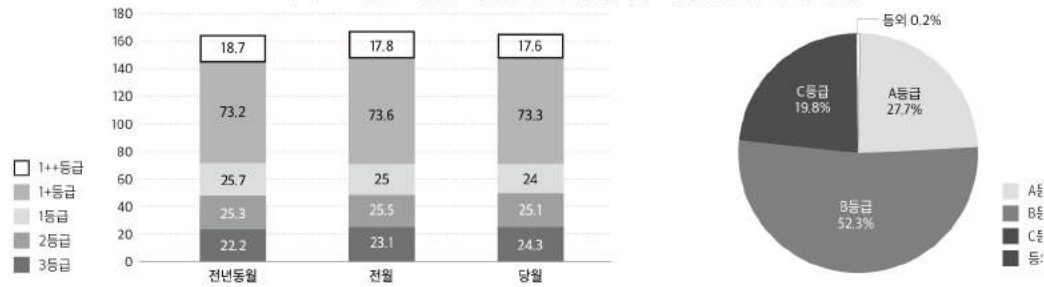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7월(A)	56,153	22.2	25.3	25.7	73.2	18.7	7.8	25.9	52.9	21.0	0.2
	1~7월(B)	432,256	22.5	25.9	25.8	74.1	18.1	7.5	24.0	52.2	23.5	0.3
2022	'21.6월(C)	64,617	23.1	25.5	25.0	73.6	17.8	8.4	27.7	52.3	19.8	0.2
	7월(D)	62,065	24.3	25.1	24.0	73.3	17.6	8.8	28.9	52.3	18.5	0.3
	1~7월(E)	466,267	24.9	25.5	24.5	74.9	17.3	7.6	25.7	52.3	21.7	0.3
전월대비(D-C)		△2,552	1.2	△0.4	△1.0	△0.3	△0.2	0.4	1.2	0.0	△1.3	0.1
전년동월대비(D-A)		5,912	2.1	△0.2	△1.7	0.1	△1.1	1.0	3.0	△0.6	△2.5	0.1
전년누계대비(E-B)		34,011	2.4	△0.4	△1.3	0.8	△0.8	0.1	1.7	0.1	△1.8	0.0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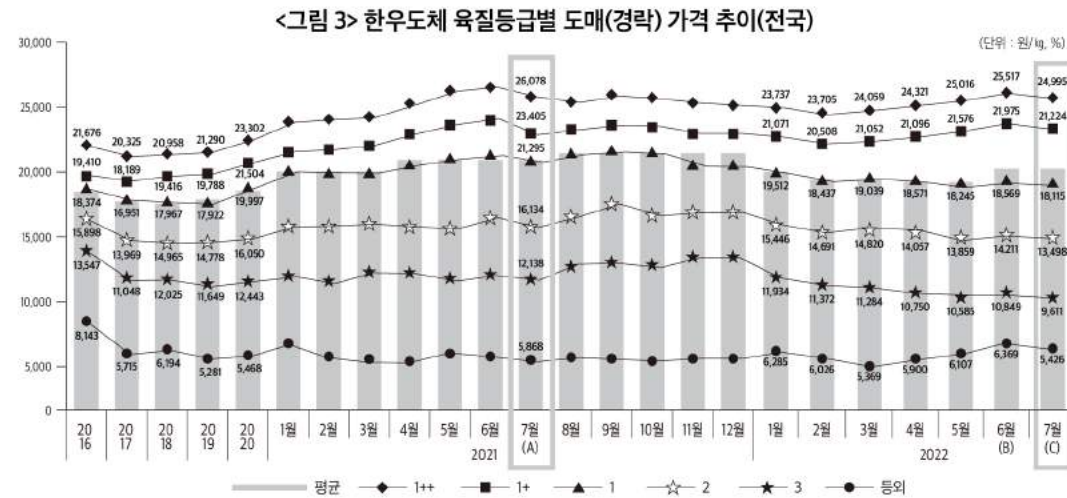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7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7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8,115원/kg)은 전년 동월(21,295원/kg) 대비 14.9%(3,180원/kg) 하락, 전월(18,569원/kg) 대비 2.4%(454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9,086원/kg)은 전년 동월(21,199원/kg) 대비 10.0%(2,113원/kg) 하락, 전월(19,644원/kg) 대비 2.8%(558원/kg) 상승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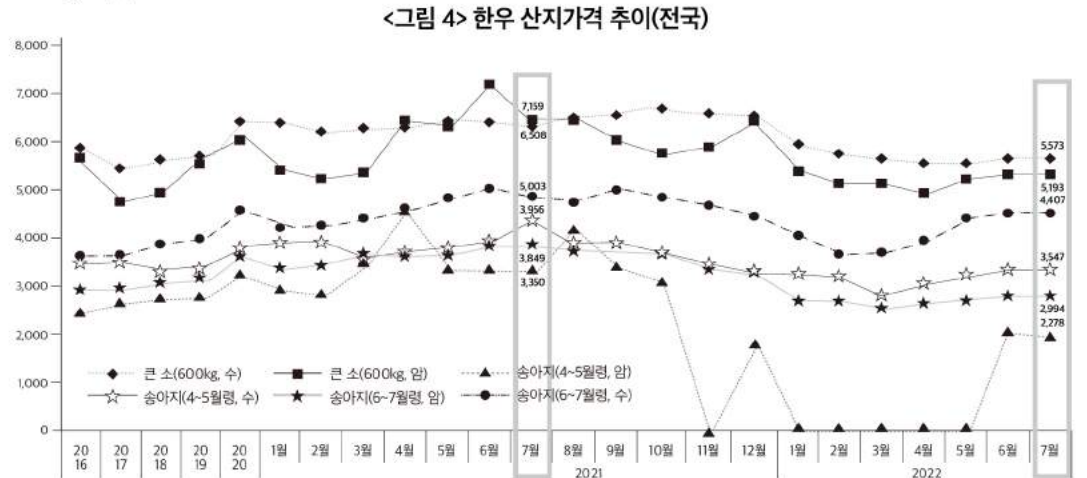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7월(A)	26,078	23,405	21,295	16,134	12,138	21,199
2022	6월(B)	25,517	21,975	18,569	14,211	10,849	19,644
증감율	전년동월(C/A)	△4.3	△9.3	△14.9	△16.3	△20.8	△10.0
	전월(C/B)	△2.2	△3.4	△2.4	△5.0	△11.4	△2.8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7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와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하락

- 7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551천원으로 전년 동월(6,369천원) 대비 12.8%(818천원) 하락, 전월(5,753천원) 대비 3.5%(202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5,053천원으로 전년 동월(6,412천원) 대비 21.2%(1,359천원) 하락, 전월(5,193천원) 대비 2.7%(140천원) 하락

- 7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898천원으로 전년 동월(3,867천원) 대비 25.1%(969천원) 하락, 전월(2,994천원) 대비 3.2%(96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266천원으로 전년 동월(4,877천원) 대비 12.5%(611천원) 하락, 전월(4,407천원) 대비 3.2%(141천원) 하락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4월	6,322	6,434	4,500	3,597	3,729	4,562
	5월	6,379	6,289	3,350	3,709	3,778	4,785
	6월	6,508	7,159	3,350	3,956	3,849	5,003
	7월(A)	6,369	6,412	3,351	4,342	3,867	4,877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B)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C)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증감율	전년동월(C/A)	△12.8	△21.2	△38.8	△27.3	△25.1	△12.5
	전월(C/B)	△3.5	△2.7	△10.0	△11.0	△3.2	△3.2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2년 7월 배합사료 생산량 및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7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36천 톤으로 전년 동기(451천 톤) 대비 3.3% (15천 톤) 감소
- 7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99천 str로 전년 동기간(226천 str) 대비 11.9% (27천 str) 감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업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3,196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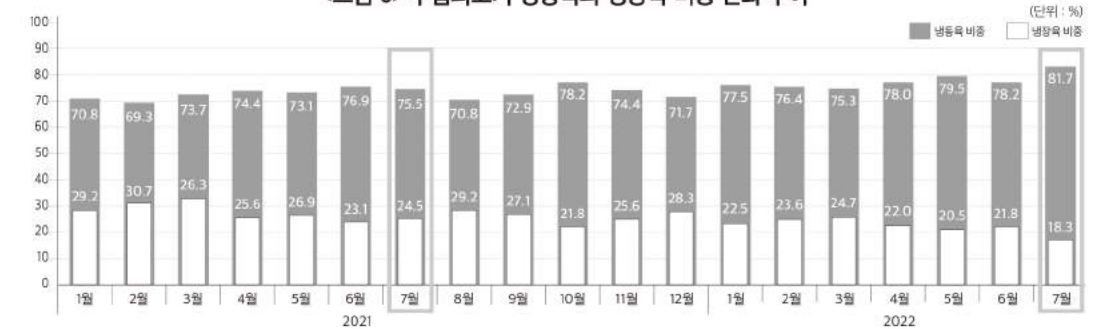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업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2년 7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5%(4,794톤), 전월 대비 15.0%(5,642톤) 각각 증가

- 7월 쇠고기 수입량은 4만 3,249톤으로 전년 동월 3만 8,455톤 대비 12.5%(4,794톤) 증가, 전월 3만 7,607톤 대비 15.0%(5,642톤) 증가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각각 20.3%(5,959톤) 증가, 냉장 쇠고기 3.9%(317톤) 감소
- 7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월 대비 갈비 6.0%(935톤), 양지 8.4%(555톤), 등심 16.7%(532톤), 앞다리 8.7%(324톤) 증가
- 7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4.1%(2,925톤) 증가, 호주산이 24.8%(2,951톤) 증가, 기타 국가에서 4.8%(234톤) 감소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7월(A)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B)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누계	275,373	215,295	60,078	103,140	52,845	30,781	23,362	65,245	153,118	88,390	33,865
증감률 전년동기(A)		12.5	21.8	△16.2	26.1	79.2	△23.5	38.9	△11.7	12.5	2.2	64.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

우크라이나 산 옥수수 생산전망

2022년 옥수수 작황 면적은 전년 대비 10% 감소,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가 공표한 봄 곡물 및 유류종자 작황동향에 따르면 2022년 6월 16일 기준, 1,416만ha의 재배면적을 확인, 전년 1,692만ha 대비 1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농지 상실은 전체 경지의 30%로 추정되고 있음
- 또,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격전지로 여겨지는 북동부, 동부, 남부이며, 특히 남부의 헤르손 주의 재배면적은 전년의 5할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자들은 판매 가격이 높은 유량종자를 재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방부는, 식량안보에 중요하지만 자원투입이 적은 봄밀과 화학비료 시비가 적은 콩 재배면적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한편, 우크라이나 최대의 곡물 생산량¹⁾을 자랑하는 옥수수의 재배 면적은, 전년의 514만 헥타르에서 464만 헥타르로 감소(전년대비 9.7%감소)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22년 3월 발표한 '분쟁이 우크라이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옥수수는 러시아 침공 시점에 1,200만 톤, 밀은 700만 톤의 재고가 있었음

- 분쟁 이후, 흑해를 이용하는 수출 경로가 봉쇄된 가운데, 창고 수용능력 한계 등으로 신곡 수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또, 수출 곤란과 재고 적체로 국내 옥수수의 가격이 전년보다 40% 하락했다는 정보도 있어, 이러한 것들도 재배작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재배현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화학비료의 8할 이상, 종자의 7~8할, 농약의 6할, 연료의 3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현지 보도에 의하면, 농지의 손실에 더하여, 농기구, 건물, 저장 사일로나 농업용 차량의 피해도 커, 향후 작물의 육성·수확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봄철농사 곡물 및 유량종자 재배현황

(단위 : 천ha)

품 목	2021년	2022년	(22/21)
봄 소맥	175	191	(109.1%)
봄 대맥	1,337	951	(71.1%)
봄 채종	33	34	(103.0%)
귀리	178	159	(89.3%)
완두	231	131	(56.7%)
메밀	51	75	(147.1%)
잡곡	78	50	(64.1%)
옥수수	5,140	4,639	(90.3%)
사탕무	225	181	(80.4%)
해바라기	6,123	4,703	(76.8%)
대두	1,219	1,213	(99.5%)
감자	1,283	1,104	(86.0%)

자료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 of Ukraine, www.minagro.gov.ua)

주 : 우크라이나에서 재배작물 중, 소맥의 9할, 대맥의 5할, 채종의 9할은 기율농사가 차지

2022년 옥수수 생산량, 전년대비 약 3할 감소 전망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의 6월 13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곡물, 콩류, 유량종자 생산량은, 국내 소비용으로 6,500만 톤, 수출용으로 3,000만 톤을 전망

- 우크라이나 곡물협회(UGA)²⁾가 7월 6일 발표한 2022년 곡물 수확 전망에서는 곡물유량 종자 생산량을 6,940만 톤으로 예상
- 수출은 현재 상황으로는 약 2,500~3,000만 톤 정도, 국경 통관능력이 크게 향상되면 3,15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3,760만 톤에서 2,730만 톤까지 감소(전년대비 26.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1,000만 톤이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 감소 요인으로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화학비료의 급등에 따른 사용량 감소 등으로 단수(1ha당 5.9톤 정도)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7월 12일자 미국 농무부(USDA) 관측에서는, 올해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을 9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확면적, 생산량 및 단수

자료 :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서비스

시 점	수확면적(천 ha)	생산량(천 톤)	단수(톤/ha)
2017년 12월	2,976	14,704	4.9
2018년 12월	3,432	25,517	7.4
2019년 12월	4,093	29,160	7.1
2020년 12월	4,927	28,060	5.7
2021년 12월	4,972	39,819	8.0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1년의 옥수수 생산은 단수가 1ha당 8톤(최근 5년 평균은 6.6톤)으로 늘어나, 생산량은 3,982만 톤(동 2,745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음

- 22년의 수확 전망에서는 전년 대비 대폭적인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반드시 큰 감소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8.2)

1)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2021/22년도 곡물생산량은 옥수수 2300만 톤, 밀 1,900만 톤, 보리 580만 톤
2) UGA: UKRAINIAN GRAIN ASSOCIATION, 우크라이나 곡물협회



우크라이나 산 옥수수 수출전망

식량 부족은 수송 수단의 문제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분쟁이 우크라이나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번 분쟁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곡물 확보 가능성 문제보다는, 곡물 수송 수단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힘
- 즉, 생산량이나 재고량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수확물의 수송 수단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흑해 수출경로가 봉쇄되어 농산물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산 곡물을 수입하던 나라에서는 공급 부족문제 직면
 - 한편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생산자는 재고를 안고 있으면서도, 판매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량부의 6월 24일 공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도 수출 가능 곡물 수량은, 1800만 톤의 재고(구곡)와 이번 생산연도 수확 전망량 6,000만 톤의 합계에서 국내 소비 2,000만 톤을 뺀 5,800만 톤으로 나타남

- 하지만 주로 농산물 수출에 이용되던 흑해 3개 항구(오데사, 미콜라이우, 마리우폴)가 봉쇄되어 수출하기가 쉽지 않음
- 현재로서는 철도나 차량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육로 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적재량이 한정돼 수출용 곡물을 모두 실어 나르기는 어려운 상황
 - 현지 보도에 따르면 철도를 이용한 수출은 현행 월 60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는 확대할 수 있지만
 - 이런 진척으로는 현재 재고(구곡)만으로도 수출하는데 18~2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대체 수출 경로 모색

-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 흑해에서의 선박에 의한 수출 경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각국으로의 곡물

- 수송에서 직면한 물리적 장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유럽 각국 간에 철도의 레일 폭이 다르다는 점
 - 이로 인해 국경에서 환적이 필요해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소요됨. 또한 국경에서의 검역도 장벽으로 작용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는 5월 12일에 지원책을 발표
 - 주요 지원책은 육로수송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회원국에 원스톱 통관창구 설치, 우크라이나 산 농산물의 최우선 처리, 터미널 이동식 곡물 적재기 설치, 우크라이나 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정지 등

- 이어 7월 6일에는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는 도로운수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
 - 유럽연합(EU) 또는 우크라이나 중 한 곳에 설립된 사업자의 양국 간 통과 및 물품운송 권리 강화, 운전면허 등 운전자의 서류승인 간소화, 양 당사자 간 국제도로운송사업의 시장진입 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힘

- 한편 회원국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양자협정이 진행, 4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 간에 물류담당 장관회의를 열고 리투아니아 교통부는 우크라이나로 2,000 톤의 수송능력을 가진 열차를 보내기로 결정

- 또한 4월에는 라트비아와도 만나 라트비아 항구를 이용한 우크라이나 산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협의함
- 이어 5월에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촉진에 관한 공동성명이 서명되었음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발 곡물 수송화물 검역관리 요건 개정과 국경검사장 곡물 통과 보증, 검역관 증원, 혼잡한 검역 지점의 24시간 가동체제 확보 등을 합의
- 이 밖에 독일 외무장관과의 6월 회담에서도 곡물 수출을 위한 항구적인 대체경로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바 있음

흑해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동향

- 유엔과 터키의 중개 아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

국은, 흑해 오데사 항 등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7월 13일에는 해상 수송 조정기구 설치와 곡물 수출 항로 안전 확보 등에 합의

- 같은 달 19일에는 이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곡물 수출 재개에 관해 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은 이 협상이 터키의 주선으로 진전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음
- 이런 상황을 토대로 같은 달 2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4자(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터키)가 모두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룸
 - 이에 옥수수의 시카고 시세가 하락하는 등 곡물수급 핼박 우려는 누그러졌지만, 다음 날인 23일 러시아군의 오데사 항 미사일 공격으로 시세는 반등
-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은 즉각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오데사 항구의 우크라이나 군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4자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이에 따라 유엔은 재차 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 간 합의내용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성명을 내고 있음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8.2)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출 재개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 수출 재개 합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주요 경로인 흑해의 해운 경로가 차단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되지 않아 글로벌 식량 위기와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농가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흑해경로의 대체 수송경로(철도와 차량)를 모색해 왔지만, 철도와 차량으로는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인 데다 유럽연합(EU) 입국 시 통관 절차와 철도의 레일 폭 차이 등의 장벽이 있어 생각처럼 수출을 확대하지 못함
-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터키와 유엔의 주선으로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곡물 및 비료의 무역 재개를 위한 협정에서 명함
 - 이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 인근 초르노모르스크 항, 피브데니 항 등 3개 항에서 곡물과 비료의 안전한 흑해 해운경로를 확보하게 됨

협정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곡물 수송 선박은 우크라이나의 지시에 따라 흑해의 안전한 경로를 향해해 터키 북서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 세계 시장으로 향함
- 선박은 우크라이나 도착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3개국에 의해 검사를 받고, 우크라이나로 무기밀수가 없음을 확인
- 선박은 유엔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3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정센터(JCC: 7월 27일 설립)에 의해 감시됨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들 3개 항구에서 흑해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 어떤 공격도 하지 않기로 합의함
- 이 협정은 조인 후 120일간 유효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한쪽이 그 유효성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첫 수송선은 8월 1일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2.7만 톤을 싣고 오데사 항에서 레바논으로 출항함



- 이 배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한 뒤 레바논 트리폴리 항으로 향함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수출이 당장의 글로벌 식량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 유럽으로 곡물이 수송되는 것은 아직 요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 선박 수송이 재개되는 한편 철도 등 육상 수송 경로 개척도 계속되고 있어 독일 국유철도회사인 도이치철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항만까지 화물열차로 곡물을 수송하는 계획을 추진
- 독일철도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독일 로스톡 항 함부르크 항 브라게 항으로 운반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수송을 위한 경로를 곡물 수송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힘
- 독일철도는 1주일에 여러 편의 수송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곡물 대부분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경유해 수송된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상황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는 8월 5일 곡물·두류의 수출 정보를 갱신, 이에 따르면 2022년 7월 우크라이나산 곡물·두류 160만 5천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것이며, 내역을 보면 밀과 보리, 호밀은 크게 줄어든 반면 옥수수는 늘고 있음

【 2022/23년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

(단위 : 천 톤)

구 분	2021년 7월	2022년 7월	전년 동월비(증감률)
곡물 계	3,025	1,605	▲47%
소 맥	961	361	▲62%
대 맥	1,097	142	▲87%
라이맥	5	0	-
옥수수	962	1,102	15%

자료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MAPF of Ukraine, www.minagro.gov.ua)

- 또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량부의 월별 수출통계(7월 5일 공표)에 따르면, 2022년 6월에는 217만 톤(전월 대비 25% 증가)의 곡물, 두류, 유량종자, 착유 박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옥수수는 전체의 47%를 차지했지만, 전년 동월 수출량(170만 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40% 감소)에 그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곡물 등 수출량(2022년) 】

(단위 : 천 톤)

구분	옥수수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유	착유 박	대두	소맥	대두유	대맥	합계
3월	177	10	29	29	36	33	12	7	332
4월	601	104	130	39	57	9	16	12	968
5월	959	342	203	101	67	44	16	12	1,743
6월	1,014	540	267	93	71	138	18	26	2,168
합계	2,751	995	629	262	231	224	62	56	5,211

자료 :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MAPF of Ukraine, www.minagro.gov.ua)

주 : 소수점 이하 사사오입으로 합계수치에 오차가 발생

㉠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입 현황

- EU 통계국에 따르면, EU 역 내에 수입된 옥수수(수출대상국 중 EU 회원국 포함)는, 22년 2월 수입량은 146만 톤(같은 달 과거 3년 평균 대비 16% 증가)으로 러시아 침공의 영향은 없었지만, 3월에는 54만 톤(동 57% 감소), 4월에는 33만 톤(동 69% 감소), 5월에는 56만 톤(동 41% 감소)으로 일제히 감소함

【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입량 】

(단위 : 천 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과거 3년 평균	2022년	전년비(증감률)	과거 3년 평균비(증감률)
1월	2,541	1,762	1,024	1,776	1,642	60%	▲8%
2월	1,694	1,283	804	1,260	1,459	82%	16%
3월	1,875	1,047	855	1,259	537	▲37%	▲57%
4월	1,419	1,241	481	1,047	327	▲32%	▲69%
5월	1,505	784	552	947	556	1%	▲41%

자료 : EUROSTAT로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작성

주 : HS 코드 1005

- 이러한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EU 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으로, 2월은 다른 수입국을 압도하여 1위 수입국이었으나, 3월 및 4월은 수입량을 대폭 줄였지만 2위를 차지

【 2022년 1~5월 옥수수 주요 수입처와 수입량 】

(단위 : 천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국명	수량	국명	수량	국명	수량	국명	수량	국명	수량
우크라이나	1,642	우크라이나	1,459	프랑스	606	프랑스	574	우크라이나	556
프랑스	382	프랑스	431	우크라이나	537	우크라이나	327	미국	386
브라질	210	루마니아	276	루마니아	297	루마니아	307	캐나다	359
폴란드	201	폴란드	206	폴란드	293	미국	297	브라질	269
헝가리	156	헝가리	161	불가리아	211	폴란드	279	프랑스	215

자료 : EUROSTAT로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작성

주 : HS 코드 1005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8.12)



우크라이나 산 옥수수, 유럽 사료생산 전망

🌐 우크라이나 남부의 가뭄으로 인한 감산 우려

-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재개 전망이 나오는 반면, 금년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확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곡물협회(UGA)가 7월 6일 공표한 2022년 옥수수 생산량은 2,730만 톤으로 전망되었는데, 유럽 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가 7월 25일 공표한 최신 작물 관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서는 비 부족 이 가뭄으로 발전, 여름농사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함
 -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1991~21년 평균을 3~5할을 밑돌고 있으며
 - 특히 남부(빈니차 주, 오데사 주)와 동부(도네츠크 주, 루한스크 주)는, 동 평균을 최대 80% 밑도는 혹독한 가뭄으로 생 산 예측 하락이 우려됨
 - 또한 북부에서는 7월 상순 이후, 예년보다 비가 많은 상태가 지속되어 토양의 수분상태 개선이 보고되고 있음

🌐 EU 역내 사료 생산, 2022년 줄어듦

- 유럽배합사료생산자연합(FEFAC)이 5월 20일 공표한 2022년 EU의 배합사료 생산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EU의 양돈·양계는 사료 원료 급등, 시장 수요 저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영향으로 돼지용 배합사료 생산은 전년 대비 4.2% 감소, 닭용 배합사료는 같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 소 배합사료 생산도 1.6% 감소했으며, 배합사료 전체 생산량은 2.9% 감소(4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사료용 옥수수 해바라기 기타 사료 원료 감소분은 주로 미국과 캐나 다로부터의 수입으로 부분적으로 보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옥수수 수입동향]

(단위 : 톤)

구분		2021년	2022년	대 전년 증감량 (21~22)
미국	1월	834	1,449	615
	2월	437	765	328
	3월	500	7,769	7,269
	4월	313	296,585	296,272
	5월	333	385,692	385,359
캐나다	1월	116,726	134,083	17,357
	2월	1	0	▲1
	3월	30,821	29,001	▲1,820
	4월	55,903	199,383	143,480
	5월	257,581	359,148	101,567

자료 : EUROSTAT로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작성
주 : HS코드 1005

- 🌐 EU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옥수수 수입량은 2022년 3월 이후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미국 으로부터의 수입량은 4월이 30만 톤, 5월이 39만 톤을 기록

-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량은 미국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4월이 20만 톤, 5월이 36만 톤으로 나타남. 이 밖 에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음

🌐 EU 사료업계는 자급률 제고 움직임을 지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3월 긴급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베르사유 선언'에서 EU 각 국 정상은 "주요 농산물 및 투입재의 수입 의존을 줄이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유럽내 생산량을 늘려 식량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
- 유럽배합사료생산자연합(FEFAC)은 EU 각국 정상의 입장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를 지나는 곡물 수 송 경로 차단에 따른 단기적 영향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장기간에 이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해, EU는 곡물 및 유량 종자의 식량 사료 용도를 우선한 포괄적인 EU 식량 사료 안보 위기관리 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또 EU는 역내 곡물, 유량종자, 식물성 단백질 생산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식물 육종 기술과 우수한 농업 실천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8.17.)

미국 축산단체, 배양단백질 표시 규제 요청

-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퍼펙트데이(Perfect Day Co.)가 실험실에서 배양한 비동물성 웨이(whey) 단백질을 사용한 프로틴 파우더를 출시하면서, 미국 축산단체는 식품의약국(FDA)³⁾에 명확한 표시수칙을 요구
 - 해당 단백질은 콩이나 아몬드 등 식물성 대체 유제품 원료와는 달리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
 - 퍼펙트데이는 2014년 설립된 이후, 소에서 짠 우유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미생물 발효를 이용해 배양한 애니멀 프리 단백질 제조 과정을 개발해, 상업규모로 발전시키는데 성공
 - 그동안 판매사를 통해 이 단백질을 이용한 우유,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등을 판매해 왔음
- 이번에 애니멀 프리 웨이(whey)단백질을 이용한 프로틴 파우더를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진짜 유제품(real dairy)"이면서도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친환경과 뛰어난 맛을 갖추었다"고 주장
 - 제품 판매사 홈페이지에는 글루텐 프리, 호르몬 프리, 락토스 프리, 비건 프렌들리 등의 키워드가 올라와 있으며, 이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 이들 회사 제품은 듀유나 아몬드 밀크가 우유로 표시된 것처럼 '우유(Dairy)'라는 표시가 사용되고 있음
- 미국낙농가연합(NMPF)⁴⁾의 반론 : 짐·마루한(Jim Mulhern) 회장이 8월 1일 HP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익을 제기
 - (1) 천연 웨이(whey)를 구성하는 수많은 단백질 중, 단 하나의 단백질을 복제하여 양산한 단백질은, 자동차 행들이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우유라고 할 수 없음
 - 즉, 이 제품들은 자연의 유제품을 재현한 것과는 거리가 멀
 - (2) 이 제품은 '지속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험실에서 만든 단백질의 환경 발자국(foot print),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가 분석되지 않았음
 - 구체적으로, 작은 단백질 조각을 배양하여 양을 늘리는데 얼마나 많은 전력이 사용되는지, 하나의 단백질을 배양하고 양산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등
 - (3) 원래 FDA의 우유의 정의인 '건강한 소에서 정상적으로 착유된 유 분비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코코넛 밀크나 아몬드 밀크처럼 '젖(乳)'에서 유래한 단어 표시는, 지난 40년 이래 식물유래 대체 유제품에 사용돼 왔음
 - 짐·마루한 회장은, "공업적으로 복제된 제품 표시와의 전쟁은 식물 유래보다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 "규제 당국의 개입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이익보다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므로, 아주 명확한 표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2.8.10.)

3) 미국식품의약국(FDA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내 해당하는 미국 보건후생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뿐만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음
4) 미국낙농가연합(NMPF :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은 미국의 최대 낙농가 단체

일본 대학, 소 메탄 배출량과 인슐린 농도 규명

- 일본 도호쿠대(東北大) 노상건(盧尙建) 교수 연구팀과 효고현(兵庫県)립 농림수산기술종합센터는 공동연구결과, 메탄 배출량이 많은 육우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밝혀냄
- 메탄은 온난화가스의 일종으로, 메탄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사료 개발이나 메탄 배출량 예측 등에 활용하고 있음

<먹이를 섭취하는 소의 호기(呼吸)를 통해 메탄 배출량을 측정(도호쿠대)>



-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CO2)의 20배 이상으로, 여러 가지 온난화가스 중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축산 유래로는 소 트림에 포함된 메탄이 대표적
- 연구팀은 일본의 메탄 배출원으로 관심이 많은 육용우에 주목, 메탄 배출량의 정도와 생리적 특징 관계를 조사함
- 메탄 배출이 적은 품종 개발도 추진되고 있지만, 동일 품종에서 같은 사료를 먹고 있어도 메탄 배출량에는 개체 차이가 있음
- 21마리의 흑모와규를 대상으로 메탄 배출량과 혈액, 위의 내용물 등을 분석함. 같은 먹이를 먹고 있어도 메탄 배출이 많은 소와 적은 소는 배출량에서 약 20% 차이가 있었음
- 메탄 배출량이 많은 소는 혈중 인슐린이나 케톤체 농도가 높았고 아미노산은 낮았음
 - 메탄을 생산할 때는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메탄 배출이 많은 소는 체내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 축산 현장에서 메탄 배출을 매일 측정하는 방법은 보급되지 않았음. 연구에 사용한 방법은 '소의 상태 파악이나 선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盧 교수)고 보고 있음

자료 : 일본경제신문(22.8.12.)



한우마당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전국한우협회



2022. 09
vol. 190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시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 23권 제9호(통권 190호)

2022년 9월 15일 발행

<비매물>

발행인 김삼주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팜커뮤니케이션

발송 자산포스트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